

2023년 봄호 vol.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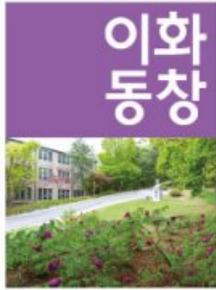
제19대 총동창회장 이명경 동창 선임  
정기총회·신입 동창 환영회  
학관 리모델링 및 재건축 진행 현황과 새 모습 대공개

# 이화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표지사진  
황규호(모교 교육학과 교수)  
스프링튼 선생님과 모란(2022년)

편집위원

- 남상택(물리 74)
- 이명경(무용 77)
- 조미숙(식영 83)
- 한미경(물리 88)
- 정진숙(행정 89)
- 김미령(커미부 89)
- 이영희(사학 88)
- 최지영(사학 89)
- 하윤선(경외 89)

발행 2023년 4월 10일 발행

발행인 이명경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3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 02 이화 동창과 드리는 한마음 기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 03 제19대 신입 총동창회장 취임사  
이명경 제19대 총동창회장
- 04 2023년도 정기총회  
제18대 총동창회의 아름다운 마무리,  
제19대 총동창회장에 이명경 동창 선임
- 07 2023년도 신입 동창 환영회  
총동창회 장학금 50명에게 수여
- 10 제18대 총동창회장 이임사  
남상택 제18대 총동창회장
- 12 2023년도 신입 동창 환영사  
황복기 자연과학대학 동창회장
- 13 2023년도 신입 동창 답사  
유지미 신입 동창
- 14 이화의 이곳저곳  
학관 리모델링 및 재건축 진행 현황과  
새 모습 대공개
- 18 만나고 싶습니다  
ATC 파트너스 대표, GS·교보생명 사외이사  
문효은 동창
- 22 이화의 기도처 순례 / I-House 기도실  
이화의 작은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곳
- 24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국내 1호 비노의학과 여성 전문의 윤하나 동창
- 28 선교지에서 온 편지  
주님, 교회 건물이 필요할까요?
- 30 총동창회 소식  
이화 동창 경조사 서비스 알림 게시판 도입 예정 의
- 32 선교부 소식  
영국에서 만난 이화 동창들 외
- 36 모교 소식  
2023학년도 공립 교원임용시험에 이화 동창 291명  
합격 외
- 42 대학(원) 소식 의과대학 외
- 45 과(학부) 소식 불어불문학과 외
- 50 지회 소식 남가주(LA) 지회 외
- 63 동창 근황 고(故) 사지숙 동창 외
- 72 새 책 소식 『이화 의료 이야기-보구녀관에서 이화의료원까지』
- 표4 2023년도 사업계획안



04



07



14



18



22



24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15)

사랑하는 하나님,  
세월을 아껴 당신의 뜻 세밀히 헤아리도록  
오늘도 구별된 때와 곳을 허락하시고  
당신 안에 머물러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허물의 사함을 받아 새사람을 입은 은택에 머리 조아려 감사하며  
다시금 속내를 올려 드리오니 당신의 얼굴 숨기지 마시옵고  
깊은 사귄으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의 심장으로부터 끊어지고 갈길 지나쳐서  
가리어져 무지하고 짓눌려져 무디어진 채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던져진 영광에 으스대며  
온갖 탐심으로 비아냥대고 스스로를 해치는 시대의 풍조 속에서  
필경 흠으로 돌아가는 삶의 유한함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로 당신께서 베푸신 은택을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의 다독이며 살피시는 은총의 배려로 그 마음을 듬뿍 담아  
겸허한 눈과 정결한 입술과 정직한 손과 발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곤비한 삶 같으나 많은 이들로 부요케 하는 삶 즐거이 살면서  
씻겨 주시는 당신의 섬김으로 무엇에나 누구에게나 거리낌이 없이 따스하고  
찢어 주시는 당신의 나눔으로 피차 내맡기어 서로의 무게를 힘써 메어 주며  
보듬어 주시는 당신의 돌봄으로 모든 이와 더불어 생명과 화평의 길 일구어 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글·이명경(무용 77)



## “포용하고 아우르는 섬김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명경(무용 77, 제19대 총동창회장)



안녕하십니까?

동창 여러분들께서 제19대 총동창회장으로 인준해 주신 이명경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앞으로 2년여 동안 총동창회장으로서 직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엄중한 책임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간 모교와 총동창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하고 헌신하셨던  
역대 총동창회장님들과 임원들의 노고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25만여 동창들을 문득 떠올리면서,

모교 '이화'에서 우리 청년의 시기에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면서, 조화로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지혜를 배웠고, 이 배움으로 잇대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화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에 새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땅 여성들의 신음 소리에 응답하셔서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를 통해  
모교 이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좇아 제19대 총동창회는 임원들과 연대해서  
이화 동창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는 세대 동창들과 오는 세대 동창들  
각각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포용하고 아우르면서 긴밀히 그 필요를 모색하여 섬김으로  
마중물의 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모교와는 지속적으로 상생과 공생의 시스템을 면밀히 구축해 가면서  
동창들과 신속히 공유함으로 모교와 동창들이 그리고 동창들과 모교가  
적극적 도움과 나눔으로 연합하여 공공선을 구현해 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19대 이화여자대학교동창회 총동창회장으로 선임된 이명경 동창은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과  
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동 대학교 신학대학원(Th.M.)을 졸업했으며 동 대학교 대학원 기독교  
학과에서 예배학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총동창회에서는, 신학대학원 동창회장과 제14대  
와 제15대 총동창회(2003년-2009년)에서 선교부장을, 제18대 총동창회(2019년-2023년)에서 부  
회장의 직임을 맡았습니다.

## 제18대 총동창회의 아름다운 마무리, 제19대 총동창회장에게 이명경 동창 선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는 3월 11일(토) 오전 11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장명수(커미부 64) 이화학당 이사장, 김은미(사회 81) 모교 총장, 김선옥(법대·법전문 75) 전 총장, 윤순희(교육 65)·김순영(약학 62) 전 총동창회장, 김영주(교육 71) 고문,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 이명경(무용 77)·조미숙(식영

83) 총동창회 부회장 및 임원들, 유현정(생미 91) 대외협력처 처장 등 모교 관계자와 '영원한 이화인' 대표 임택기(국문 72) 동창 등 300여 명의 동창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지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총회였다. 한미경(물리 88)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정기총회는 남상택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과 개회사, 전년도 회의록 낭독, 2022 회계연도 감사 사업 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23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모교 소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

김은미 총장

### 남상택 총동창회장, 감사 인사와 성원 부탁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팬데믹도 만났지만, 코로나19로 취소될 줄 알았던 모든 행사들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다”며, “시공간을 뛰어넘어 화상회

의로 진행된 글로벌 지회장 간담회, 온라인으로 열린 대바자회, 졸업 50주년을 맞는 '영원한 이화인' 첫 추대, '이올 연합회(올해의 이화인 전체 회원 모임) 발족, 대강당에서 대면으로 열린 이화인의 밤 행사 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음으로 뛰어준 제18대 총동창회 임원들과 과 회장, 국내외 지회장, 산하단체 회장, 후원이사 및 모든 이화 동창들의 사랑과 협조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25만 이화 동창은 이화 정신을 잊지 않고 소명을 다하며 훌륭한 인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모교가 최고의 대학으로 도약하고 총동창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이화 동창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하였다.

이어 2022년 정기총회 회의록을 김인정(컴공 87) 서기가 낭독하고, 서동민(불문 79) 동창의 동의와 최은희(중음 81) 음대 회장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하고 가결되었다. 2022 회계연도 감사 보고에서 임 진(작곡 72) 감사는 "총동창회 회칙 제9조 3항에 의거,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 까지의 회계장부와 제 증빙서류를 감사한 결과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임 진 감사      신경희 회장단추대위원장

다음은 2022 회계연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이 있었다. 한미경 총무가 2022 회계연도 사업 보고를 하였으며, 임선희(경영 88) 회계가 2022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였고, 참석자들은 유인물을 참고하며 경청하였다. 임선희 회계는 후원이사회비에 대해서 2021년도 예산 2억 5,000만 원과 2022년도 3억여 원이었는데, 적극적인 협조로 3억 6,000여만 원으로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기 운영차액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줄어든 데 대해서는 비용 절감 노력에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 통신비와 인쇄비 등의 비용이 늘어났고, 대면 행사 개최로 비용 증가가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절약하며 체계적으로 살림하는 데 도움을 준 임원들께 감사를 전했고, 김



정영수 이사장, 김은미 총장, 남상택 총동창회장, 김선옥 전 총장(왼쪽부터)



윤순희·김순영 전 총동창회장, 김영주 고문(오른쪽부터)

미희(기독 86) 동창의 동의와 서미영(정외 72) 동창의 재청으로 2022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가 가결되었다.

이어 한미경 총무가 2023년도 사업계획안을 보고하고, 임선희 회계가 2023년도 예산안을 보고하였다. 2023년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박현수(디대원 00) 동창의 동의와 최은영(물리 87) 동창의 재청으로 가결되었다.

### 제19대 총동창회장과 임원 개선 발표

이날 총회에서는 중요한 안건으로 제19대 총동창회 임원 개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회장단추대위원장 신경희(수교 77) 동창은 “총동창회 회칙 제7조에 의거하여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장단추대위원회에서 선임한다”고 알리고, 선출위원회와 추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설명하였다. 우선 지난해 11월, 선출위원회(회장, 부회장, 고문, 대학(원)별 동창회장을 포함한 11인 이내)가 구성이 되었고, 선출위원회에서 7인의 추대위원을 선출하여 12월 정기임원회의에서 인준받았음을 밝혔다. 추대위원은 이경숙(영문 70)·김영주고문, 신경희 감사, 최경희(화학 80) 동창, 박상금(행정

87) 동창, 신영선(장미 88) 조형예대 회장, 이화정(대학원 92) 대학원 회장이다. 선출된 추대위원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총 여섯 차례의 회의를 갖고, 추천받은 후보들에 대한 대면 인터뷰까지 하면서 엄중하고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쳤음을 밝혔다. 그 결과 제19대 신임 총동창회장으로 이명경 현 총동창회 부회장이 선임되었음을 발표했다. 이에 임복희(행정 93) 동창의 동의와 조지희(의학 88) 동창의 재청을 받고 새 회장단 인준을 선포했다. 이날 개선된 제19대 신임 총동창회 회장단은 회장 이명경(무용 77) 동창, 부회장 한은주(특교 79)·곽은아(한음 85) 동창, 감사 이정화(독문 74)·정은실(경영 88) 동창이다.

이명경 제19대 총동창회장은 “엄중한 책임이 물러오고 무겁다”고 말하면서도 “즐거이 섬김으로 이 걸음을 나가야 하겠다는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서 모든 세대 동창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각의 의견에 귀 기울여 들으면서 포용하고 헤아리고 긴밀하게 모색해 가는 마중물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중책을 맡은 신임 회장단에게 동창들은 축하 꽃다발을 선사하며 열렬



제19대 총동창회장으로 선임된 이명경 동창



제19대 총동창회장단(총동창회장, 부회장, 감사 등)

하게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이어 장명수 이사장이 지난 4년 동안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애쓴 남상택 총동창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남 회장의 물리학과 동기와 후배들이 축하 꽃다발을 증정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적극적으로 뛰어준 제18대 부장단과 각 과·단과대학(원) 회장, 국내외 지회장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였고, 함께 수고한 임원들에게 참석자들은 박수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학관 재건축과 리모델링 공사 5월 봉헌 소식 전해

이어 김은미 총장이 모교 소식을 전했다. 김은미 총장은 모교가 중앙일보 국내 대학 평가에서 2년 연속 6위를 달성했다는 소식과, 대학원 충원을 연속 90퍼센트 이상 달성, 연구비 20퍼센트 성장 소식을 전했다. 김은미 총장은 “캠퍼스 환경 개선을 위해 학관 재건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5월에 봉헌식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과 “이화 150주년을 준비하면서 동창회 기념관을 포함한 생활 환경



장명수 이사장이 남상택 제18대 총동창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관, 헬렌관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미래 캠퍼스 구축사업 계획도 세워졌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동창의 기도와 지원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승희(피아노 87) 음악부장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다함께 교가 제창을 한 뒤, 남상택 총동창회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2023년 정기총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참석자에게 모교에서 떡을, 총동창회에서 샌드위치, 텀블러 등을 감사 인사와 함께 선물로 전했다.

## 2023년도 신입 동창 환영회

# 총동창회 장학금 50명에게 수여

정기총회에 앞서 신입 동창 환영회가 3월 11일(토) 오전 11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문화관 806호)에서 열렸다. 신입 동창 환영회는 2023년도 2월 학부를 졸업한 3,403명과 대학원을 졸업한 2,238명이 총동창회 신입 동창으로 입회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이다.

주종미(체육 92) 회우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환영

회는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를 제창하며 시작되었다. 이어 기도를 맡은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은 “새로운 후배들을 주님의 따뜻함으로 맞이한다”고 환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을 섬김으로 어두운 사회에 빛이 되는 이화 동창이 되게 해주시기를 청했다. 이어 있을 총회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를 마쳤다.



신입 동창 환영회 개회사



황복기 자연대 동창회장, 유지미 신입 동창(왼쪽부터)

### 사회에 나오는 신입 동창들을 큰 박수로 격려

이어 자연과학대학 회장 황복기(화학 83) 동창의 환영사가 있었다. 황 동창은 당시 교목이었던 고 김홍호 목사님이 “대학에 다니면서 꼭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던 말씀을 회상하면서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 100권을 읽어라, 고민을 의논할

스승을 만나라, 평생 옆을 지켜 줄 10명의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신입 동창들에게 “아직 평생 친구가 10명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 사회에 나가면 곳곳에서 훌륭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멋진 이화 동창들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며 “이화 동창이라는 더 큰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이화 동창들을 만나고, 기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힘들 때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이화 동창들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유지미(법대·법전문 23) 신입 동창은 답사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3년 동안 코로나19로 학내 활동을 많이 해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하면서 “이화를 누릴 수 없었던 신입 동창들에게 이런 환영회 자리는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유 동창은 “선배들의 후원으로 이뤄지는 학내 장학제도를 보면서, 선배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따뜻한 응원에 힘입어 새로운 사회,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배님들의 배려를 후배들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유지미 동창에게 총동창회가 준비한 기념



유지미 동창에게 축하 선물을 증정했다

박재은 동창 등 50명의 이화 동창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품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더 넓은 이화 동창 네트워크 안으로 힘차게 발을 내딛는 신입 동창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 신입 동창과 재학생 50명에게 총동창회 장학금 각 100만 원씩 지급

다음은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총동창회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신입 동창 18명과 재학생 32명 등 총 50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오랜만의 대면 총회에서 사회자가 장학금 수여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자 참석한 신입 동창과 재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 진학하는 박재은(도예 19) 동창에게 대표로 장학금 증서를 전달하였다. 동창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 환영했다.

신입 동창 환영회는 이소민(피아노 14) 동창의 반주로 정병화(성악 87) 동창이 노래한 두 곡의 축하가 〈O Mio Babbino Caro-G. Puccini〉와 〈You Raise Me Up-아일랜드 민요〉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간주가 연주되는 동안 정병화 동창은 “당신이 내 손을 잡아 주었을 때 나는 저 험한 산을 올라도 거친



정병화 동창 축하



오랜만에 치러진 대면 행사에 많은 이화인이 참석했다

폭풍 속을 넘어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고 읊조리며 몽글한 감동을 선사했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정기총회와 신입 동창 환영회를 찾은 동창들

## 지혜와 도전, 포용과 리더십으로 함께한 4년



남상택(물리 74, 제18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에 함께해 주신 장명수 이사장님과 김은미 총장님, 김선옥 전 총장님, 윤순희·김순영 전 총동창회장님 그리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김영주 고문님께, 또한 각 과를 대표하여 참석하신 동창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은 어려우시지만 전 총장님과 고문님께서도 격려 인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행사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 모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이임 인사를 드리고자 다시 서고 보니 4년 전 이 자리에서 취임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 걸어가는 길에 걸림돌이 있다면 꼭 필요한 디딤돌로 고쳐가며, 초심을 잃지 않고 많은 동창들과 함께 걸어가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선배들의 연륜에서 알려 주시는 지혜와, 젊은 동창들의 열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모아서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래로만 흐르는 물처럼 겸허한 마음으로,  
난관을 만나면 돌아서 흘러가는 지혜와,  
큰 바위를 만나면 부딪쳐도 보는 도전과,  
모두 모여 바다로 가듯이 넓은 포용력으로,

이화 동창들과 그리고 헌신과 열정을 다해 주셨던 임원들과 미래를 내다보며 흰 눈 쌓인 들판에 첫발을 내딛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다고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의 어려움도 만났지만 난관에 절대 주저하지 않는 제18대 임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섬김 덕분에 행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응원과 기도를 보내 주셨던 수많은 동창들의 나눔과 배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되돌아보면 많은 행사 일정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당시는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벌써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총동창회 지회장 간담회를 처음으로 글로벌 화상회의로 가졌고 시공간을 뛰어넘어 세계 곳곳의 동창들과 동시에 줌 화상에서 소식을 전하는 경험도 코로나가 가져다준 기회였기에 이 또한 감사하며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교정에서 펼쳤던 대바자회 대신 총동창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감히 온라인 판매를 시도하며 친목과 결속을 다지던 일, 졸업 50주년 기념행사를 처음 시도하면서, 추대된 분들이 곱고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동창과 손주까지도 축하하는 가운데 대

강당에 입장하시던 모습이 기억 속에 새롭습니다.

졸업 30주년에 추대된 '올해의 이화인' 전체 회원 모임을 발족시켜 '이올 연합회 창립총회' 행사를 개최했던 일, 비 오는 저녁에 그렇게 많이 오시리라고는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던 2,000여 명의 이화 가족이 대강당에 모여 '이화 가족이 이화를 응원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함께하며 흥겹게 즐겼던 '이화인의 밤' 행사, 코로나로 취소되는 줄 알았던 이 모든 행사를 새롭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다시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 위해 임원들과 밤을 새워가며 제작하던 일 등 정말 이 모든 일정은 한마음으로 뛰어 주신 임원들의 끊임없는 아이디어와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각 과 회장님, 국내외 지회장님, 산하단체 회장님, 그리고 후원이사 및 이화동창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사랑과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고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화 동창 여러분!

137년 전 이 땅에 열악한 여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화의 문을 열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지켜 주셔서 총동창회도 역대 회장단의 헌신적인 봉사 덕분에 115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

다. 그동안 25만여 명의 이화 동창은 이화 정신을 잊지 않고 소명을 다하며 훌륭한 인재로 자리매김하여 사회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교가 최고의 대학으로 도약하고, 자랑스러운 총동창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인생에 가장 푸르렀던 대학 시절에 정신적으로 큰 산과 같았던 이화의 숲길을 상념 속의 먼지를 털어내고자 많이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길에서 인생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배울 수 있었고, 그 경험을 머리와 가슴에 담아 사고의 틀을 정립하고 싶었기에,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후배들도 모교를 진정 사랑하게 되고, 졸업 후에도 동창회를 다시 찾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창 및 이화 가족 모든 분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동안의 큰 사랑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18대 총동창회(회장 남상택)는 팬데믹으로 인한 국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동창 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많은 이화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바자회 온라인 판매, 줌 화상회의를 통한 국내외 지회장 간담회 개최 등 비대면 행사를 개최해 시공간을 뛰어넘은 이화인의 만남을 가능케 하고 총동창회의 미래 비전을 보여 주었습니다. 졸업 50주년 동창을 대상으로 한 '영원한 이화인' 추대,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창설, 2,000여 명의 이화 가족이 대강당에 모여 '이화 가족이 이화를 응원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함께하며 흥겹게 즐겼던 '이화인의 밤' 행사 등을 개최해 이화인의 결속을 다지고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했으며 이화 가족의 저변을 확대하여 모교 사랑의 기쁨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18대 총동창회의 그동안의 모교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평생을 함께할 '이화'라는 울타리



황복기(화학 83, 자연과학대학 동창회장)

안녕하십니까?

자연과학대학 동창회장 황복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명수 이사장님, 김은미 총장님, 김선욱 전 총장님, 남상택 총동창회장님, 윤순희·김순영 전 총동창회장님, 김영주 고문님, 각 대학 동창회장님 및 각 과 동창회장님 등 많은 선후배 동창들을 모시고 25만 동창들을 대신하여 신입 동창 환영사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44년 전 신입생 첫 채플 때, 당시 교목이셨던 고 김홍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새삼 생각납니다. 김 목사님은 대학 다니면서 꼭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을 100권 읽어라, 언제라도 고민을 의논할 수 있는 스승을 만나라, 그리고 평생 옆을 든든히 지켜 줄 10명의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아름다운 이화 교정에서의 배움의 시간들도 귀한 시간이었으나, 특히 소중한 것은 이화에서의 추억들과 새로운 경험을 함께한 친구들, 이화 동창들입니다.

신입 동창 여러분, 여러분 곁에 평생을 함께할 10명의 친구들이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성공적

으로 대학 시절을 보낸 것이겠지요? 혹 아직 10명이 안 되나요?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이화라는 교정을 떠나 사회에 나가면 사회 곳곳에서 훌륭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멋진 이화 동창들이 사회 곳곳에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될 것입니다.

이화 교정보다 더 넓은 이화 동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새 친구들, 동창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도 귀감이 되는 많은 새로운 이화 동창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슬기로운과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힘들 때 따뜻한 위로와 격려,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을 성원하는 이화 동창들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이화 동창 울타리로 들어온 신입 동창 여러분, 이화 학당에서 배우고 깨운 친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멋지게 해내고 다른 동창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화 동창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동창이 되신 것을 다시금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모인 이화인들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이화동창》을 받으시는 동창 여러분 중 주소가 변경된 분은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설렘과 두려움



유지미(법대·법전원 23)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23년 신입 동창을 대표하여 답사를 하게 된 법대·법전원 졸업생 유지미입니다. 먼저 신입 동창을 대표하여 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선후배 간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신 모든 이화의 동창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대략 7년의 시간 동안 3월 개강을 맞아왔는데, 더 이상 개강도, 수강 신청도 없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개강 파티나 종강 파티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마지막 학기를 끝내고 나서 학교를 몇 번 방문했는데, 과잠(과 점퍼)을 입고 전공 서적을 들고 다니는 학우들을 보며 그들이 밟아가고 있는 과정을 모두 끝마쳤다는 성취감이 들면서도 동시에, 아직 그 시절의, 많은 선택과 경험의 기로에 있는 학우들에 대한 부러움이 겹쳐지는, 묘한 감정을 느꼈던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보통 졸업을 하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게 되는 듯하나, 사실 저는 이제 제 과거라고 말해야 할 이화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이화여대 학부 출신이 아닌 데다가 이화여대의 대학원을 다니는 3년 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학내 활동을 많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화인이 되었음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화'의 많은 단면들, 이화인으로서 졸업하면서도 이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미련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 그리고 저처럼 이화를 누릴 수 없었던 신입 동창들에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법학관 건물 내 특정 강의 시설에 적힌 선배님들의 명패나 선배님들의 후원으로 이뤄지는 장학금 제도로부터, 선배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선후배, 동기 간 교류가 적어 새로운 사회로 진출하면서도 어디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저와 같은 졸업생들에게, 먼저 이 같은 자리를 제안해 주신 선배님들의 애정에서도 여전히 이화인으로서 불리울 수 있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이화에서의 교육을 통해 나를 성장했다고 느꼈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내딛는 발걸음에는 여전히 설렘보단 두려움이 좀 더 큰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동창 선배님들의 따뜻한 응원에 힘입어, 선배님들의 지원과 관심이 그 가치를 잃지 않도록, 신입 동창들은 새로운 사회,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저와 같은 신입 동창들이 느꼈던 동창 선배님들의 배려를 후배들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졸업생들의 졸업을 축하해 주시고 새로운 신입 동창들을 환영해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신 동창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올 한 해에도 모든 이화인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은지 59년 만에 최첨단 공간으로 단장한 학관



지난 2021년 6월에 시작된 '학관 리모델링 및 부분 재건축'이 현재 내부 인테리어 및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25만 동창, 특히 인문과학대 동창들을 중심으로 과거 학창 시절의 추억이 아로새겨진 이 공간에 대한 애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큼니다. 그런 만큼 학관 공사 진척 상황에 대한 관심도 남다릅니다. 이에 곧 완공을 앞둔 학관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 진행 현황과 첨단 공간으로 바뀌게 될 학관의 새 모습을 소개해 동창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합니다. - 편집자 주

### 리모델링 영역과 재건축 영역 두 부분으로 나눠 공사 진행

지난 2021년 1월 25일(월) 모교는 '학관 리모델링 및 부분 재건축 기공식'을 갖고, 그해 6월 28일(월) 본 공사를 위한 첫 삽을 떴다. 모교 관리처 건축팀 관계자는 "본 공사 일정은 철거 및 인허가 건으로 여름방학 시기에 맞춰 시작되었으며 2023년 2월 26일(일) 건물 외부 공사를 완료, 준공 승

인을 거치고 나면 2023학년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내부 인테리어 관련 공사를 진행해 좀 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점과 광주 철거 붕괴 사고로 국토부의 전국 철거 현장 점검, 리모델링 구역 성산대로변 창호 교체 및 내부 인테리어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2022년 7월 완공이라는 당초 예정보다 완공 일정이 미뤄진 셈이다.

1964년 준공된 학관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모교가 우리나라 대표 종합대학으로 급성장하면서 학생들의 교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다. 연건평 4,355평(14,332.90㎡)에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 규모로 당시 교내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다. 학관은 인문과학대학 각 전공 사무실과 연구소 건물로 사용되었고, 주로 인문과학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었지만, 이곳에서 대부분의 대형 강의와 교양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화의 많은 동창들에게는 잊지 못할 학창 시절의 추억이 아로새겨져 있는 공간이다.



1~5. 공사 시작 전 학관 모습 6. 공사현장 모습

이번 리모델링 및 부분 재건축 공사는 리모델링 영역(10,795.44㎡)과 재건축 영역(6,845.24㎡)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리모델링 영역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기존 공간을 건축구조, 기계설비, 소방, 전기, 통신 등을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면으로 개선하여 좀 더 스마트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재건축 영역은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까지 새롭게 증축하여 강의실, 다목적홀, 복합문화라운지, 열람실, 기도실, 학생편의 시설, 첨단ALC능동학습강의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교육시설을 갖춘 최첨단 건물로 구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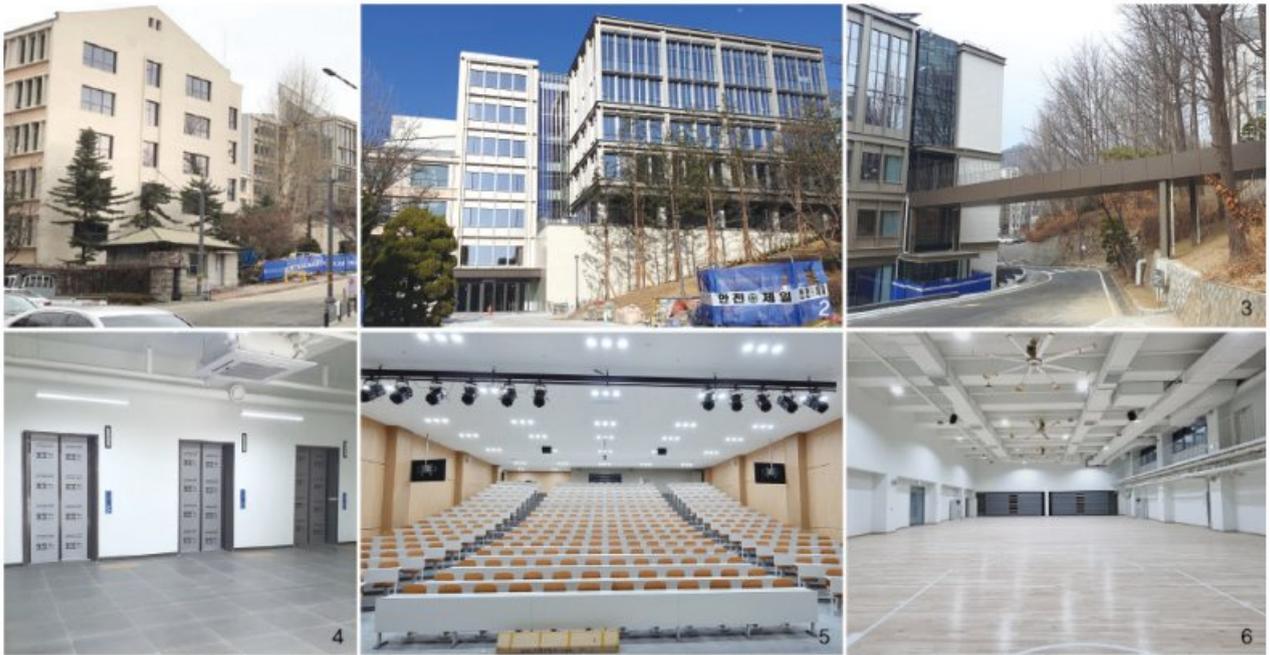
관리처 건축팀 관계자는 “현재 건축 부문에서는 외벽 단열, 승강기 설치, 화장실 개선, 내진 관련 구조 보강, 석면 철거작업을 완료하였고, 설비 부분에서는 GHP(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교체와 화장실 개선을, 소방 부문에서는 리모델링 전 구역 스프링클러와 소방시설 설치를 끝마쳤으며, 조명 및 CCTV 설치 공사 등을 진행했다”고 공사

진척 상황을 소개했다.

### ‘연결 브리지’ 설치로 이동 거리 대폭 단축

새 학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뭐니 뭐니 해도 학생들의 동선을 배려한 편의시설을 새롭게 만들거나 설치한 점이다. 우선 학관 재건축 구간 6층에서 이화·포스코관으로 가는 외부 도로와 연결되는 폭 3.8미터, 길이 약 29.5미터의 브리지를 새롭게 설치했다.

“학생들에게는 브리지 설치가 이번 재건축에서 최고의 관심사”라고 말하는 관리처 건축팀 관계자는 “후문에서 이화·포스코관이나 종합과학관, 기숙사 등 다른 건물로 이동할 때의 거리가 확실히 짧아지기 때문에 학관 재건축 영역에서 이 부분이 학생들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브리지를 통해 나오면 바로 길 건너편에 이화·포스코관 셔틀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이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동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 공사를 마친후 학관 모습 3. 학관 6층에서 외부 도로로 이어진 연결 브리지 4. 엘리베이터홀(재건축) 5. 대형 강의실(재건축) 6. 다목적홀(재건축)

또한 기존에는 학관에서 층간 이동을 하려면 경사로(램프)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2층 강의실에 가기 위해 1층 경사로를 올라가면 바로 3층이 나오는 기이한 구조 때문에 신입생에게는 학관이 적응하기 쉽지 않은 건물이었다. 인문과학대학에서는 2층 없이 1층과 3층이 바로 연결되는 학관 구조가 영화 속 마법의 공간처럼 느껴진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해리포터’의 마법학교 호그와트를 주제로 진행하기도 했다(《이대학보》 2021.2.22일자 참조).

이처럼 학관 내 동선이 미로 같다는 학생들의 불편 사항이 이번 리모델링에서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관리처 건축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가 리모델링과 부분 재건축이 혼합된 것이어서 경사로와 계단을 그대로 두는 등 전체적인 동선을 개선하기는 어려웠지만, 리모델링 구간에 엘리베이터 한 대, 재건축 구간에 엘리베이터 세 대를 설치하여 기존보다 층간 이동 편리성을 훨씬 높였다”고 설명했다.

### 리모델링 구역은 ‘연구존’과 ‘강의존’ 분리, 재건축 영역은 첨단시설 갖춘 강의실 배치

학관의 각 층별 공간 배치는 어떻게 달라졌을지도 관심사다. 학관에는 총 8개 전공(국어국문학·중어중문학·불어불문학·독어독문학·사학·철학·기독교학·영어영문학) 및 인문융합전공(인문경영·인문예술미디어·인문테크놀로지)과 연계전공(미술사학·일본언어문화), 미디어예술인문학 협동과정 등이 동지를 틀고 있었다.

현재 임시로 동창회기념관(지상 1,2층 규모, 그 위로 생활과학관 증축) 2층을 쓰고 있는 인문과학대학 학과통합 사무실과 학장실 및 행정실 등은 새롭게 리모델링된 학관 4층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는 기존에 쓰던 층으로 그대로 이동하는 셈인데, 이에 대해 건축팀 관계자는 “리모델링 구역의 경우 한두 호실 정도는 바뀌어도 대부분은 기존과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기로 한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달라진 게 있다면 기존 3층과 4층에 연구소와 강의실이 혼재돼 있던 것을 각 룬들이

기능적으로 효율성과 연관성을 갖도록 존을 형성한 점”이라고 소개했다.

즉 3층에는 연구소들을, 4층에는 강의실과 각 학과 사무실, 행정실 등을 각각 모아서 ‘연구존’과 ‘강의존’으로 분리했다는 것. 또한 인문과학대학 행정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리모델링 구역 108, 109호 내부를 새롭게 바꾸었으며 학생 사용 공간도 지하 1층 학생회실 및 동아리방, 1층 루체테라운지(유연학습공간), 생협, 카페테리아, 3층 커리어디자인실, 4층 컴퓨터 실습실 등을 배치해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했다.

한편,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지은 재건축 영역의 경우에는 강의실이 대폭 확충된다. 학습 공간의 첨단화 및 다양화를 위해 4~8층에는 스마트강의실, 능동형강의실, 첨단강의실 등이 여럿 들어서며, 기존의 대형 계단식 강의실(110, 414호)도 오래된 내벽과 바닥 등을 다 헐고 새롭게 꾸며 재건축 영역 2~3층에 400석 규모의 대형강의실로 탈바꿈했다.

4층에는 복합문화 라운지가 자리잡고, 기존 6층에 있던 농구장 겸 작은 레크리에이션홀도 샤워실과 준비실이 확충되어 체육활동이 가능한 지하 1층의 다목적홀로 새로워졌다. 그 밖에도 재건축 영역 곳곳에는 복합문화 라운지, 열람실, 기도실, 첨단강의실 등 새로운 형태의 룸들이 채워질 예정이다.

### 동창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기부 동참… 모든 이화인의 애교심과 자부심이 깃든 곳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거쳐 거의 신축에 가까운 건물이 들어서는 만큼 건물의 명칭이 바뀔지 여부에도 동창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문과

학대 동창회에서는 사회과학대학의 이화·포스코 관이나 법학전문대학의 법학관, 엘텍공과대학의 신공학관처럼 인문과학대의 정체성을 살린 멋진 이름이 지어지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다만, 모교 기획처에 문의한 결과 “현 단계에서 건물 명칭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럼, 언제부터 학생들이 학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될까? 건축팀에 따르면 전체적인 공사가 완료된 후인 여름방학 중에 학관 입주 부서들의 이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모교 재학생들은 2023년 2학기부터 새 배움터 학관에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교 대외협력처는 그동안 ‘학관 리모델링 및 재건축 기금 모금’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 인문과학대학 동창회를 비롯해 학관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이화 동창들에게 지속적인 후원을 독려해 왔다.

캠페인 개시 1개월도 안 되어 11억 2,000여 만 원(2021.2.22)이 모금되는 등 동창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고, 재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관 리모델링 및 재건축 기부 소식이 퍼지면서 재학생을 포함한 20~30대의 적극적인 기부가 두드러졌다. 또한 후반으로 가면서는 동창회 기수별로 후원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 40~70대 동창들의 참여도 잇달았다.

이제 새롭게 단장을 끝내고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미래 교육 공간’으로 변신한 학관은 그야말로 모든 이화인의 애교심과 자부심이 깃든 모교 건축물의 하나로 그 이름을 이화의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글·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만나고 싶었습니다 /

ATC 파트너스 대표, GS·교보생명 사외이사  
문효은 동창

## IT에 아트와 비즈니스,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까지 더하다



“  
‘나’를 믿고 위기를 잘 서핑해서  
아무도 그려보지 않은  
‘나’만의 인생 지도를 그려가기를  
”

한국 벤처산업 1세대, 디지털 전문 경영인, IT업계 선두주자로 통하는 문효은(불문 1985년 입학, 1990년 졸업) 동창. 2013년 《여성신문》이 주최하는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 지도자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는 최근 새롭게 창업한 ATC 파트너스 대표로, 또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한편으로 일하는 여성들의 커뮤니티에서도 든든한 ‘맡언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인터넷과 IT 분야의 고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에 ‘아트’와 ‘비즈니스’를 입히는가 하면 최근에는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기후’까지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의 도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모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아이비즈넷 초기 멤버와 이후 온라인교육사업 대표, 그리고 대표 IT 기업인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 부사장에 이르기까지 IT업계에서 활약했는데요, 그렇게 시대를 앞서는 분야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던 1990년에 마땅히 취업할 만한 곳이 없었어요. 당시 공채나 여성 채용이 흔치 않았으니까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우연히 번역 업무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운 좋게도 그 일이 미국의 가장 큰 PC통신사 매뉴얼 번역이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고 통신 모뎀을 설치하고 국내 PC통신과 인터넷에 가입해서 미국 PC통신까지 사용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직접 경험해 보면서 매뉴얼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인터넷 서비스의 모든 것-메일, 커뮤니티, 쇼핑, 정보 검색 등-을 포함한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PC통

신을 잘 몰랐어요. 이 분야가 너무 재미있는 데다 계속 취업할 직업이 없어서(웃음), 어쩌다 창업을 하고, 코스닥 기업에 매각하는 등 성공적 엑시트(Exit, 투자금 회수)도 했지요. 그렇게 갑자기 불어 닥친 인터넷 열풍과 IT의 흐름에 준비된 사람으로서 함께하게 되었어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 퇴사 후,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교수를 하면서 한예종 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에 도전하게 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을 그만두고, 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모교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도 겸하게 되었어요. 리더십개발원은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10년 전 그 프로젝트 기획부터 정규과정 세팅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교수로도 함께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앞으로의 진로에 고민이 생겼는데 ‘여성 과 리더십 관련 박사학위를 준비할까?’ 아니면 ‘낮설지만 관심 있는 분야를 전공으로 석사를 한 번 더 할까?’ 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교수 선배님들은 경쟁력 있는 여성 리더십을 전공으로 하는 경영학 박사를 준비하면 좋겠다고 조언했지만, 저는 ‘아트’ 쪽에 더 관심이 가서 그 분야를 새롭게 확장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아트’에 대한 관심은 제가 다음 부사장 시절에 추진했던 마케팅 업무 중 다양한 전시 후원 사업에서 비롯됐어요. 그때 인사말 및 협약식을 하기 위해 예술의전당 같은 전시장에 다니며 예술작품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그러면서 회사 내부에도 몇몇 작품을 전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러저러한 작은 시도를 했더니, 엔지



문 동창은 아토틀이로 새로운 문화와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아트벤처스’를 창업하기도 했다(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니어를 포함해 다음 사내 직원들이 아티스트와 직접 대화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아트가 보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행동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변화를 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트와 경영, 그리고 IT를 결합하는 뭔가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예종 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2015년 아트벤처스를 창업하게 된 스토리가 흥미롭더군요.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겠다’는 문 동창의 목표와 참신한 감각이 녹아든 아트벤처스를 소개해주세요.**

저의 오래된 인생 키워드 ‘IT’와 새롭게 관심이 생긴 키워드 ‘ART’를 결합하여, “아트로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켜 아티스트에게 도움되고 예술을 즐기는 대중화에도 기여하자”는 취지로 회사를 창업했어요. 그리고 토이(장난감)에 예술의 가치를 부여한 아토틀이라는 분야를 발굴해 ‘아토틀이 컬처’ 전시, 중국 진출, IP 캐릭터 사업, 아트 NFT(대체불가토큰) 등 다양한 일들을 전개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아트라는 영역이 대중적이지

않아 일반인들이 매우 낯설어하고 신선해했어요. 지금은 아트로 블록체인 조각판매, NFT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금융과 결합해 파생된 비즈니스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기업가네트워크 '위넷(WE,Net)'을 만들고, 7년째 운영 중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느슨하지만 친밀하게 연계된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모임', '함께 성장하도록 서로 경험과 조언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라는 글을 읽었어요. 이 모임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고, 주로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나요?**

모교 리더십개발원 교수로 있을 때, 스웨덴과 함께 진행하는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한국 여성 기업가(사장)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 자료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성 기업가 데이터가 1970~80년대 자료에 기반한 논문만 있을 뿐 본격적인 자료는 거의 없더라고요. 실제로 여성 창업이라는 개념이 여성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가계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이미 모바일 등의 플랫폼 변화로 다양한 비즈니스 창업의 기회가 열리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여성 기업가에 대한 실제 사례나 네트워크 등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2013년 말 '위넷'이라는 모임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성 창업가가 매우 드물어서 어렵게 발굴하고 발표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네트워크를 꾸렸죠.

7년 사이에 정말 많은 여성 창업가들의 유익한 만남의 자리로 성장했어요. 참여 인원도 150여 명으로 초기보다 몇 십 배나 늘었고요. 유니콘 기업의 여성 대표, 성공적으로 엑시트한 여성 대표 등 분야와 상황도 다양해졌고, 이제는 벤처 캐피탈 여성



위넷이 GS와 공동으로 개최한 '라이프스타일 스타트업과 여성 창업가 강연회'를 마치고 스태프들과 함께(2019년 6월)

심사역의 숫자도 더욱 늘어났어요. 조직이 확장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캐피탈과 MBC 방송문화진흥회 사외이사에 이어, GS 지주회사와 교보생명 사외이사에 선임된 것으로 압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로서 기업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 면에서 그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사회 전원이 특정 성으로만 구성되지 않아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자산 2조 원이 넘는 기업에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는 여성 사외이사를 두어야 해요. 이사회는 경영상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구이므로 경영적 역량, 전문적 역량 등을 기반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요.

저의 경우에는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의 COO 부사장으로 오랫동안 조직을 경영했던 경험, 그리고 요즘 모든 기업이 추구하는 AI·ChatGPT·메타버스·로봇·블록체인 같은 IT 흐름과 IT의 변화에 대

한 지식 등을 갖췄다는 점을 높이 사주신 것 같아요. 특히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고 산업에 빠르게 접목해야 하는 IT 분야는 기업에서 꼭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GS와 교보생명 같은 매우 훌륭한 회사가 앞으로 더욱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도록 이사회 의사결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새롭게 창업한 ATC 파트너스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ATC는 Art(예술)·Tech(기술)·Climate(기후)의 약자예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글로벌 전염병에 이어 다시 한 번 전 세계가 락다운을 경험한 분야가 바로 '기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지요. 바야흐로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회사들은 이제 '기후'라는 어젠다를 글로벌 법적 규제나 실제 ESG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 즉 앞으로 해결할 이슈로 삼았어요.

'Art'와 'Tech'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이고 또 의미 있는 가치로 여겨왔던 터라 일찌감치 그것을 비즈니스로 연결했다면, 'Climate'는 코로나19 이후 갖게 된 소명의식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ATC 파트너스는 기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를 얻고, 그런 기회가 없다면 후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만든 조직이에요.

'기후' 문제를 '테크'로 풀고자 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기후' 문제를 '아트'로 알리고 싶어하는 곳에 후원할 계획이에요. 미래 세대가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적으로 공포감을 갖고 락다운되는 세상이 아닌, 좀 더 안전하고 나은 세상에서 살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에요. 이런 여러 다양한 움직임이 미약하나마



모교 리더십개발원 정규 과정을 듣는 학생들과 함께한 문효은 동창(2018년)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가이자 경영자로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신나게 해온' 인생 경험을 담아 이화의 동창들, 특히 미래를 꿈꾸는 동창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영국 영어사전 콜린스가 지난해(2022년) 올해의 단어로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 영구적 위기)라는 합성어(Permanent+Crisis)를 선정했어요. 전쟁과 고물가, 기후변화 등 불안정한 상황과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다는 의미예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경영 분야도 이런 외부 환경을 반영해 계속 '위기'라는 단어를 기본으로 삼아 전략을 수립할 듯해요. 그럼에도 위기는 위험[危]과 기회[機]가 함께 있다고 생각해요. 비록 환경은 불확실하고 위험하더라도, 그럴수록 멋진 이화인들이 '나'를 믿고 위기를 잘 서평해서 아무도 그려 보지 않고 가보지 않은 '나'만의 인생 지도를 잘 그려 가기를 응원합니다.

글·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이화의 기도처 순례 / I-House 기도실

## 이화의 작은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곳

이화의 기숙사 중 한 곳인 I-House는 세계 각국에서 온 교환학생과 언어교육원생 등 외국인 학생과 게스트가 거주하는 곳이다. 2006년 A&B동과 C동을 개관한 후 2012년 D동, 2013년 E동 등이 차례로 문을 열어 총 5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약 680여 명의 학생과 게스트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중국 국적이 가장 많고 한국, 일본, 미국 국적 순이라고 한다(2022년 10월 기준).

동창회관(이화·삼성교육문화관) 뒤편 I-House 건물 안에 있는 이화의 기도실을 찾았다. 기도실은 I-House 개관 초기인 2006년에는 C동 1층에



외국어 성경전서와 찬송가가 사생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등지를 틀었지만, 2022년 C동에 학생식당 공사를 하면서 A&B동 지하2층으로 자리를 옮겼다.

‘Christian Prayer Room(기도실)’이라는 문패가 붙은 방을 들어서면 나무 의자 3개, 작은 제단이 소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고 기숙사 사생에게만 개방된 공간이다. 기숙사 사생들이 조용히 기도하고 사색할 수 있게 마련된 곳이라 소박하고 아담하지만 정결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따뜻해 보이는 원목으로 사방을 둘러싼 벽이, 집 떠나온 이국의 기숙사 사생들을 어머니의 품처럼 조용하게 감싸 안아 주는 것처럼 포근해 보인다.

제단 위에는 우리말 성경전서와 함께 베트남어, 미얀마어, 중국어, 러시아어 성경전서와 찬송가가 나란히 놓여 있다. 성경전서와 찬송가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갖다 놓기 때문에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성경전서 등도 함께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기도실에서 ‘이화의 작은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이화를 찾아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이 기도실에서 그리운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그리고 향수병을 달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명기 10:19)라는 성경 구절이 떠오른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이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그리운 고향 땅으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간구해 본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C동에 있었던 구 기도실의 모습



I-House의 외관



다양한 국적의 사생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 1호 비뇨의학과 여성 전문의 윤하나 동창

## ‘방광 튼튼’ 운동 전파하는 몸짱 의사



팬데믹 시대에 건강, 면역력, 운동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바쁜 일상 때문에 또는 힘들어서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고 꾸준히 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근육을 만드는 운동은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 그런데 하루에 1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일주일에 이틀은 수술하며 밤에는 응급 환자 콜도 받는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과장 윤하나(의학 94) 동창은 ‘2021 머슬마니아 대회’에서 2개 분야 메달을 수상했다.

병원 업무에 학생 교육, 연구도 하면서 불규칙한 식사를 하다 보니 건강이 안 좋아진 윤 동창은 병원 앞에 있는 헬스장을 찾아갔다. 살도 빨리 뺄 겸 머슬마니아를 목표로 운동해 볼까라는 농담을 했는데 국가대표 출신 헬스 트레이너가 윤 동창을 선수반에 등록하고 응원하여, 머슬마니아 대회 3개월 전부터는 식단 관리하고 근육을 만들었다. “인생 최고로 근육을 많이 만든 때였어요. 제가 운동을 극한까지 해보고 대회에서 수상한 것이 알려지면서 환자들이 말을 잘 들어요. 이 사람은 독한 사람이라면서.”

몸 좀 쓸 줄 아는 몸짱 윤 동창은 진료, 수술, 연구 활동을 하면서 목과 허리가 안 좋아 필라테스를 15년 넘게 해왔다. 치료 목적으로 필라테스를 하다 보니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방광 튼튼’ 운동이라고 명명한 실습을 넣어 건강 강좌를 했고, 휠체어 생활을 하는 사람을 위한 ‘휠라테스’도 개발했다. 최근에는 이대서울병원 내 소변건강연구소에서 전문적이면서도 쉽고 재미있는 소변 건강 강좌를 하면서 전문 트레이너의 소변 건강을 위한 운동을 소개하기도 했다. “코어 근육이 없고 골반이 비뚤어지면 항상 아래쪽이 아프게 되어 있지요. 적절한 운동을 하면 신진대사에 자극을 줘서 불편한 증상이 개선되고 몸이 개운해지면서 소변도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 소변 건강의 중요성을 쉽게 설명해 주는 윤 동창은 국내 1호 비뇨의학과 여성 전문의다.

### 이화여대라 가능했던 비뇨의학과 선택

부친이 산부인과 의사였던 윤 동창의 집은 병원 진료실과 입원실 위층에 있었다. 병원 문 앞 응급벨이 밤이고 새벽이고 울리면 부모님이 후다닥 내려가셨다. 간호사도 한집에 같이 살았고

병원에서 피 빨래 하고 소독하는 것을 보아 왔다. 윤 동창이 비뇨의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심플하다. 외과와 내과가 적절하게 조합된 비뇨의학과가 재미있었고 실습 때 선생님들 분위기가 좋았다. 결정적인 것은 3학년 때 타 대학 교수가 강의에서, 지금까지 비뇨의학과에 여자 의사가 없는데 이대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냐고 바람을 넣은 것이다. “어린 마음에 그렇다면 내가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가지에 꽂히면 그걸 해야 직성이 풀리는 면이 있어요.”

이전에도 몇몇 선배들이 지원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잘 안 됐다. 그러나 이후 주변 여건들의 변화가 있었다. 윤 동창이 비뇨의학과를 선택하겠다고 했을 때 동료들도 “너라면 할 수 있다.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는 분위기였고, 교수들도 이대생이 해야 한다며 격려했다. “제가 운이 좋았어요. 제가 지원했을 때 주임 교수님이 보수적이라 여자는 안된다고 했다면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이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뭔가를 할 때, 겁도 없이 제가 하고 싶은 걸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었고, 벽이란 것이 없었어요. 1990년대 남녀공학 의대에서는 여자라서 선택하지 못하는 과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대였기 때문에 감히 그런 생각도 하고 실천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학교 졸업하고 알게 되었지요. 학생들에게도, 지금 이대에서 생활해서 잘 모르는데, 이대라서 기회가 훨씬 많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기회가 있는 이대를 다시 찾아 2017년에 윤 동창은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했다. 약, 기구 개발에 관심이 많아 건강 관련 산업에 대해 공부했다. 진료 이외의 다른 분야를 알 수 있었고, 경영자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많은 것을 경험한 후에 모교를 다니다 보니 이대의 나무는 색깔도 더 초록초록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좋았다.

### ‘2022년 올해의 여성 비뇨의학자’ 수상

윤 동창의 주요 진료 분야는 배뇨 장애, 요실금, 여성의 성기능 장애다.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약으로 교정해 주면서 필요하면 수술도 한다. 딱 떨어지는 치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떼어내는 암 수술과는 종류가 다른 수술을 한다. “매일 아침 기도해요. 저 때문에 환자에게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요. 요리에 비유하자면, 세프는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저는 찌개가 끓을 때 나쁜 국물을 걷어내고 적재적소에 약간의 조미료를 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윤 동창은 ‘2022년 올해의 여성 비뇨의학자’로 선정되었다. “전문의와 전공의 각각 한 명씩 받았는데, 저보다는 전공의가 받은 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막 시작한 전공의들을 격려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하



비뇨의학과 SP 로봇수술 100례 달성을 기념하여 찍은 사진

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테이프를 끊고 왔으니 앞으로 후배를 잘 키우라는 의미로 생각해요.”

1995년에는 윤 동창 혼자였지만, 현재 비뇨의학과 여성 전문의는 30여 명, 전공의를 포함하면 50여 명의 여성 비뇨의학자들이 있다. “천천히 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성 전공자들이 좀 더 많아질 거예요. 비뇨기는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고령 인구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비뇨기 관리를 잘못하면 노년을 깔끔하게 생활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들을 보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는 의대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2022년부터는 이화의료원 국제의료사업단장도 맡고 있다. “10~20년 사이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K메디슨’이라 할 만큼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전 세계 어딜 가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잘하는 것도 많아요.” 해외 홍보 활동과 다양한 국가 사업의 창구 역할을 하는 국제의료사업단은 현재 외국어 가능한 교수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 조성을 하고 있다.

### 내 인생에 감사한 분들

이대서울병원에서 여러 중책을 맡고 있는 윤 동창에게는 고마운 분들이 있다. “운이 좋았어요. 저와 나이가 10, 20, 30년 차이 나는 분들이 저의 중요한 시기마다 길을 잡아 주셨지요. 권성원·박영요·심봉석·정우식 네 분의 교수님이 저를 눈물 나게 감사할 정도로 키워 주셨어요.”

당시 권성원 주임교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여성을 비뇨의학과에 받아들인 분이다. “본과 3학년 때 권성원 교수님께 갔더니 어머니 허락받고 와라, 다시 갔더니, 어머니 모셔와라, 하면서 고민하셨어요. 저 때문에 교수, 레지던트, 의국장 회의가 각각 열렸어요. 공부를 끝까지 다 해 낼 수 있을지, 전문의로 개업해서 성공할지, 교수로 키워낼 수 있을지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권성원 교수님이 밀어 주셨지요.” 우수한 지원자가 이대에서 나왔으니 받아서 앞장서 키워야 한다고 결정 난 것이다.

“교수님은 제가 전문의가 될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대학원 다닐 때 장학금 받을 수 있게 다른 단체에 소개도 해주셨어요. 교수님이 방송 출연할 때 많이 데리고 나가 주셔서 덕분에 덩달아 마스크도 탔어요. 주요 일간지 사회면에 이

대병원에 첫 여성 비뇨의학과 전공의가 들어왔다는 기사가 실리니, 노년층 환자들이 저를 명의라 생각하고 전공의 1년차인데도 대우해 주고 잘 따라주셨죠.”

이화의료원장을 지낸 심봉석 교수는 윤 동창이 말도 안 듣고 고집도 세고 짧은 혈기에 욕하는 게 있을 때마다 오냐오냐한 것은 아니지만 다 받아 주면서 쓸 만한 사람이 되게, 길게 봤을 때는 교수로 클 수



이대서울병원 개원 당시 비뇨의학과 첫 수술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제가 레지던트였을 때 심 교수님이 직접 차트와 오더를 매일 검사해 주셨어요. 너무 혼나서 많이 울었는데, 학회를 가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른 교수님들에게 인사 시켜 주셨지요.” 이 대목동병원장을 한 박영요 교수는 윤 동창이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공부하게끔 해준 분이다. 단기적, 장기적 계획과 비전에 대해 조언을 하며, 지금도 윤 동창이 엉뚱한 짓 한다 싶으면 채찍질하고, 비뇨의학과 과장이니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 그림을 그려 준다. 정우식 교수의 권유로 윤 동창은 박사 논문을 시작했고, 정교수는 함께 공부하면서 실험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줬다.



여성성건강연구학회 학술대회에서

### 다양한 활동으로 활기차게 생활하다

부모님이 음악을 좋아해서 항상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자란 윤 동창은 대학 입학 후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클라리넷을 배웠다. 의대에는 중고등학교 때 음악 전공하다가 온 친구들이 많았다. 현악기는 수준 차이를 극복하기가 힘들지만 관악기는 하기 나름인 면이 있고 전공자가 많지 않아서 본과 2학년 때는 클라리넷 협연까지 했다.

“음대 전공자들이 도와 줘서 오케스트라 소리에 묻혀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의상 전공한 친구가 만들어준 백설공주 드레스를 입었죠.” 동아리 활동을 오케스트라에서 하다 보니, 윤 동창에게 첼로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펠로우가 되고 나서 문화센터에 등록하고 첼로를 배우기 시작해 지금도 주말마다 레슨을 받는다. “버킷 리스트 중 하나가 은퇴할 때 첼로 공연하는 거예요. 저와 발레를 같이 배운 친구가 피아노 치고, 저는 첼로 하고, 그러다가 둘이 함께 발레 하자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일과에, 거의 주말마다 세미나가 있고, 저녁에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다른 병원과 함께하는 콘퍼런스나 학회가 있다. 그 사이 사이에 악기와 운동을 끼워 넣어 다른 분야의 사람들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이런 활동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일할 수 있지요. 힘들었던 일은 쌓아놓고 기억하지 않아요. 계획한 일이 잘 안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길을 빨리 찾아내는 편이에요.” 플랜 A에서 플랜 B로의 전환이 빠른 윤 동창은 환자들이 편해지고 살 만해졌다면서 고마워할 때 보람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이 든다. 비뇨의학과 명의 윤 동창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한다. “방광 질환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소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몸에 불편함이 느껴질 경우, 그냥 좋아지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간단하게 약으로 치료될 수도 있는 것을 키우지 말고 바로 비뇨의학과를 방문하기 바랍니다.”

글 · 허윤선(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 주님, 교회 건물이 필요할까요?

‘쯔까로(라드닉, 샘물)’ 교회가 조지아에 정식 등록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친정아버지 장례식을 위해 출국하기 전에 이미 세 번이나 등록 거부를 당하고 낙심하였습니다. 이미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교회가 있으니 이름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이나 이름을 바꾸었는데도 다 있다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정부가 교회 등록을 거부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친정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2월 13일(월)에 조지아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한 달간의 등록 유예 기간 동안 저희는 ‘모든 민족을 위해 영원히 흐르는 샘물교회’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신청했고, 이 나라에서 이 이름의 교회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조지아에도 라드닉(샘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서울 삼호침례교회 안철웅 담임목사님과 31명의 청년들이 단기선교로 조지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삼호침례교회 단기선교팀은 태권도, 부채춤, 워십, 스킷 드라마로 한국어 센터와 그린다이아몬드 전도 집회, 그리고 네 차례의 길거리 공연 및 전도를 하였습니다. 삼호침례교회가 잘 준비해 온 덕분에 가는 곳마다 선교팀을 환영해 주었고, 전도 공연 이후에 러시아어와 조지아어로 일대일 복음 전도를 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고 진지한 모습으로 영접 기도까지 따라 하는 모습은 조지아 사역에 소망이 있음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는 할 수 없었던 길거리 전도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다이아몬드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옛 유치원 건물로, 현지인 교회가 주일 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저희와 저희 교회 성도 두 가정이 살고 있어서 저희는 전도 모임 장소로 그린다이아몬드를 놓고 기도해



‘오경만 장학금’ 수여



그린다이아몬드 전도 집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호침례교회 전도 집회를 시작으로 이곳을 렌트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이 시작되어 감사합니다.

지난 2월 6일(월)부터 한국어 센터가 방학을 마치고 개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두 개의 반을 새로 모집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페이스북에 광고한 지 1시간 만에 두 개의 반 모집 정원이 다 차서 광고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트빌리시에서 2시간 30분 떨어진 작은 시골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가끔 방문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국어 센터는 8개의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호침례교회와 센터에서의 모임을 가지고 종교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며칠 전 저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직 대화를 하는 중이지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더 교회 사역에 집중하라는 말씀으로 센터 사역을 내려놓는 것도 기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중간고사에 이어 이번 기말고사 우수학생 6명에게 '오경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소천하시기 전 한국어 센터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며 1년 치 장학금을 기부해 주셔서 친정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오경만 장학금'이라고 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큰 격려와 동기부여가 되었고, 친정아버지의 소천 소식을 전하며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아쉬움과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오주영(화학 94, 조지아)



### 기·도·해·주·세·요

#### 1. 그린다이아몬드 수요 목장 모임이 부흥하게 하소서.

그린다이아몬드에서의 모임은 그린다이아몬드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조지아인)을 위한 정기 모임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기도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모임이 부흥하게 하시고, 모임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 2. <어, 성경> 신약 과정이 시작됩니다.

지난 학기 구약에 이어, 3월 16일(목)부터 <어, 성경> 신약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다른 강사들과 연합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고, 저는 4과, 10과, 11과를 강의합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 먼저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참

석하는 모든 학생들이마다 말씀의 힘을 경험하게 하소서.

#### 3. 주님, 교회 건물이 필요할까요?

최근 이곳의 상황을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질문 하나를 주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주님, 교회 건물이 필요할까요?" 정식으로 교회는 등록이 되었고, 주일예배 모임 장소와 수요 모임 장소도 다르고, 지금은 한-조지아 정보접근센터에서 한국어 센터를 하고 있지만 교회 건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 전도 효과도 더 커질 거 같은 기대감에 생각을 모아 봤습니다. 또한 조지아 교회 건물을 위해 이미 현금해 주신 분들의 종갓돈이 모여져 있기에 주님께 뜻을 묻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총동창회 소식

## 이화 동창 경조사 서비스 알림 게시판 도입 예정

2023년 2월 3일(금) 오후 12시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15명의 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장 회의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임원들은 총동창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 활발히 토의하였다.

우선 2022년도 총동창회의 사업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제18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헌신적

봉사와 열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2022년 회계연도 회계보고와 함께 결산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보고 사항으로, 대외협력처와 나는 업무 회의를 소개하고 모교와 총동창회가 ‘경조사 서비스 알림 게시판’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한 동창 네트워크의 강화, 이화 캠퍼스 기금(헬렌관과 생활과학관 리모델링) 모금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타 안건으로, 총동창회 법인화 추진 상황을 보고했고, 총동창회 주소록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모교와 협의 중임을 알렸다.

## 2022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통과

2023년 2월 9일(목) 오전 11시 강남 한우리 한정식에서 총 42명의 임원 중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정기 임원회가 열렸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2022년도 추경예산안이 보고되어 참석자들의 동의와 제청으로 통과되었으며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통과되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새해 인사와 함께 제18대 총동창회 4년 임기 동안 도움을 아끼지 않은 고문

과 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2023년도 정기 총회를 3월 11일(토)에 대면으로 개최한다고 안내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각 과 및 대학(원) 회장에게



2월 정기 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됐다

2023년 '올해의 이화인'과 '영원한 이화인' 추천 명단을 2월 28일(화)까지 총동창회 사무실로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모교와의 협업을 통해 이화

동창의 경조사 시스템을 구축, 축하, 조화 및 근조 기 신청을 모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원 개선된 각 대학 및 대학원 동창회장 소개

2023년 3월 9일(목) 오후 2시 30분에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3월 정기 임원회가 열렸다. 먼저 임원 개선이 된 각 대학 및 대학원(조형대, 법대·법전문, 의과대, 생활환경대, 디자인대학원) 동창회장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각 과에서도 임원 개선이 된 곳이 많은데 임원들이 총동창회와 동창간 든든한 가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22년도 결산안 심의 및 통과가 있었다. 법대·법전문 안경희(법대·법전문 86) 회장은 “총동창회의 회계연도를 모교 학사 일정에 맞춰서 3월 1일부터 하지 말고 국세청 신고 기준에 따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3월 11일(토) 정기총회 준비사항을 보고하였고, 정기총회에서 예산과 결산, 사업 보고와 사업계획 안건을 상정하고 동의 및



3월 정기 임원회

재청을 받아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또한 정기총회에서 제18대 총동창회의 일이 마무리되며 제19대 총동창회 회장단을 발표한다고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경희(수교 77) 회장단추대위원장은 공정하게 진행된 제19대 총동창회장 선임 과정 및 절차를 정기총회 현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4년 동안 임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협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문자 메시지나 SNS로 주셨던 사랑과 응원, 격려의 말씀, 또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주신 말씀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오래도록 마음속에 간직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임기 초에 전달하지 못했던 감사패를 김영주(교육 71) 고문에게 전달했으며, 총동창회 법인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법률 자문을 맡아 애써준 김구슬(법대·법전문 93) 부총무와 안서연(법대·법전문 02)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으로 제18대 총동창회 정기 임원회를 마무리했다.



제18대 총동창회 임원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 영국에서 만난 이화 동창들

친분이 있는 선교사 따님이 영국에서 2023년 1월 28일(토) 결혼식을 했습니다. 한국 친척을 대표하여 우리 부부가 초청받아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어 1월 25일(수)부터 한 달간 영국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영국에서 가정을 이루며 두 손자를 키우고 있는 아들 가족을 반갑게 만났고 많은 이화 동창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총동창회 선교부장을 올해 3월로 마무리합니다. 6년간 동창들을 섬기는 중 해외에서 총동창회와 동창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어 보람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 같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선교를 하고 있는 박은경(유교 95) 동창 선교사가 영국 지회 카톡방에 깜짝 만남을 제안하여 대영박물관에 이화 동창 몇 분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박은경 동창의 남편 박계원 선교사가 대영박물관에 진열된 유물 중 성경 속의 역사적 내용에 근거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곳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바빌론의 고레스 왕의 칙령(Cyrus Cylinder)의 원형이 있었습니다. 바빌론이라는 대제국에서 노예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신화일 뿐이라고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의문시 할 때 이를 발견한, 성경을 증명한 자료의 실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이 떠난 화려한 우르 문명, 중동 땅 인근에서 있었던 구약성서의 전쟁 등 대영박물관에서 성경을 증명하는 보물들을 만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침 영국 지회 홍

시내(커미부 02) 회장을 비롯, 어린 아기까지 유모차에 태워 나온 젊은 동창들과의 만남은 이방 땅에서 만난 이화인끼리의 반가움이었습니다.

1월 초 선교부 기도 모임에 하윤희(경영 90, 베트남) 동창 선교사의 딸 박하경 양이 참석하였습니다. 옥스포드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길래 나도 곧 영국을 갈 것이니 그곳에서 만나자는 말을 했습니다. 도착한 지 며칠 안 됐는데 하경 양이 카톡으로 옥스퍼드에 우리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동창회 토크방에 계신 옥스퍼드 대학의 정미령(교육 64) 명예교수와 연결되었습니다. 박하경 양과 정미령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을 안내해 줄 때 마침 제 손녀 김내리(식영과 4학년 재학생)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원래 기독교 신자 양성을 위해 세워진 학교이며 현재 40개 대학으로 번성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의 산실로 C.S Lewis, John Wesley 등 수많은 각계 지도자들을 길러낸 학



〈메시아〉 해설 강의 후 동창 가족들과 함께

문의 전당입니다. 어지러운 현실이지만 아직도 기독교의 뿌리를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개 대학에서 매일 오후 6시에 Evensong을 하고 있다고 하며, 한 대학 채플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Christ Church College). 성경 구약과 신약 말씀을 번갈아 낭독하는 사이 사이에 성가복을 입은 20여 명의 성가대가 대어섯 곡의 찬양과 기도를 하며 예배는 3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튿날은 정미령 교수의 자택에 초청받아 정 교수가 손수 차린 점심과 함께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정 교수의 아버지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린 죄목으로 잡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다 어머니는 1·4 후퇴에 남매를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모친은 산업전도단을 조직해서 전도하시며 남매를 억척스레 키우셨습니다.

정 교수는 이화여중·고와 이화여자대학을 졸업하고 세계를 향한 꿈을 가지라는 모친의 조언에 따라 유학 길에 올랐습니다. 남동생은 미국 NASA에서, 본인은 이곳에서 연구와 가르침에 일생을 걸었다 하셨습니다.

정미령 교수는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이화 동창으로 재영 이화 동창회를 처음 만든 분이셨습니다. 3월에 한 달간 모국 방문을 계획하신다고 이대 국제관에 숙소를 예약했다고 하셔서 그때 이대에서 만날 약속을 하였습니다.

마침 남편과 함께 웨일즈에 약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한현주(피아노 90)·전경숙(교공 80) 동창 선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한 선교사가 두 시간 차를 몰고 전 선교사를 데리고 와 카디프의 한 선교관에서 만났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나눔은 그동안의 아픔과 외로움과 재현신의 시간이 되

었습니다.

전경숙 선교사는 남편과 친정어머니를 1년 사이에 주님 품에 보내드리고 자식도 없는 홀몸으로 이방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혹시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합니다. 이때 신명기의 말씀이 큰 힘이 되었다 합니다.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삼중 긍휼을 받은 자라는 축복으로 들렸다 합니다.

런던으로 돌아와 친구 부부가 섬기는 재영 한인 노인회를 가게 되었는데, 손선혜(영문 64) 선배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고뿐 아니라 대학 전공까지 일치하여 친밀함과 즐거움이 더했습니다. 우간다의 김영자(영문 64) 선교사와 동기라 하여 대화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3월에 우간에 예배당 입당 예배를 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재영 한국문화원 주관으로 헨델의 <메시아>의 복음적 해설 강의를 요청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공지되자 2월 22일(수) 저녁 6시 30분 뉴폴든에 있는 한국문화원 홀에 런던에 있는 동창들 20여 명이 모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화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헨델의 <메시아> 음악을 들으며 그 속의 복음을 나누는 시간이 영국 체류의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총동창회가 2003년부터 매년 주관했던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는 헨델의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대 무용과 신은경(무용 78) 교수에 의해 창작되었음을 기억하며 그리워했습니다. 어두웠던 땅 한국의 여인들을 위해 메시아의 사랑이 이화를 세워 주시고 이제 이화인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음을 목도한 축복의 한 달 여행이었습니다.

글·성혜옥(영문 70, 총동창회 선교부장)

## ‘2023 새내기 신앙 오티’를 다녀와서

공휴일인 3월 1일 수요일, 이화여대 다락방전도 협회 3층 예배실에서 이화기독학생연합(이하 ‘이기연’)이 주최하는 <새내기신앙오티(이하 ‘새신오’)>가 열렸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로 이뤄진 새신오에는 새내기 23학번 73명과 재학생 및 섬기는 스태프, 동창 포함 총 181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몇 년 전만 해도 새신오에 새내기가 10~20명 정도 모인다고 들었는데, 작년에 50여 명, 올해 73명이 모이게 되니 앞으로 더 많은 새내기가 새신오에 함께할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다.

새신오는 박채은(일반대학원 뇌인지학과) 재학생의 사회로 총 3부로 진행이 되었다. 1부는 개강 예배로, ‘이화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오전 10시가 되어 허술(기독 18학번) 재학생의 인도로 찬양하며 개강예배가 시작되었다. 오전부터 약 120여 명의 학생, 교수, 강사, 동창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올해 하나님께서 모교에 부을 은혜가 기대되었다. 이후 박은정(국제대학원 한국학과) 재학생의 대표 기도가 이어졌다. 기도 후에는 안선희 교목실장이 ‘이화인의 인생관’이라는 주제와 디모데전서 6:17-19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해 주셨다. 교목실장은 한국 사회에 크게 기여한 이화여대의 역사를 두루

언급하며, 새내기들이 이화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나아가달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이기연 부대표인 김지윤(일반대학원 미디어인터랙션) 재학생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헌금기도를 올려드렸고, 교목실장의 축도 기도로 개강예배를 마치게 되었다.

이후 2부 순서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로 간증 나눔이 진행되었다. 학생 대표로 최현서(컴공 21학번) 재학생이 나와서 자신의 구원 간증과 이화 안에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간증했다. 구원의 확신 없이 방황하던 학부 1학년 1학기 세월을 보내며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며 기쁘게 살게 된 최현서 재학생의 간증을 들으며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함께 찬양할 수 있었다.

교수 대표로는 화학과 명예교수 전길자 교수가 간증했다. 전길자 교수는 은퇴 이후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다. 전길자 교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예레미야 5:1, 미가 6:8, 히브리서 11:5-6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에게 대해 말했고, 이화에 53세의 나이로 선교하러 온 메리 F. 스크랜튼 선교사와 역대 이화학당 당장 선교사를



1부 찬양 시간



조별 모임

소개했다. 또한 이화가 받은 선교의 은혜를 이제  
는 캄보디아의 이화스쿨유, 초등, 중등, 고등학교  
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 알아나가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앞으로 이화스쿨대학도 세워질 예정인데,  
캄보디아의 제2의 이화여대가 참으로 기대가 되  
었다.

간중 시간 후에는 강예지(국제대학원 한국학  
과)·이예원(초교 20학번) 재학생의 인도로 레크리  
에이션 시간을 가지며 즐거운 게임을 하였다. 이  
곳에 와서 처음 만나는 학생들 사이의 벽이 허물  
어지고 하나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후에 조 발표와 함께 각 조들이 학교 외부로  
나아가 함께 식사교제 하며 조별 나눔을 진행하였  
다. 소그룹으로 모여 서로의 삶을 더욱 자세히 나  
눌 수 있고, 아직 대학 생활을 경험하지 못해서 두  
려운 마음이 있는 새내기들이 선배들을 통해 좋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학교생활의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식사 시간 후에는 여러 개의 유익한 주제들로 이  
루어진 분반 강의 시간을 통해 관심 분야의 주제  
에 대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바른 지식을 쌓는 시  
간을 가졌다. 분반 강사들은 교수, 동창, 기독교아  
리 간사 등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오셔서 열정적  
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고, 새내기들의 만족도가  
대부분 높았다. 그리고 이대 다락방전도협회 1층  
애찬실로 돌아와 조별로 식사교제를 하였다.

식사 후 3부 순서가 '나를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아이자야씩스티원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약 40분간 찬양집회를 드렸다. 모두  
가 자리에서 일어나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뜨  
겁게 예배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40분간  
그 누구도 자리에 앉는 사람이 없이 간절한 마음  
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찾는 시간이었다. 게다가

저녁 집회를 함께 드리러 온 사람들로 인해 자리  
가 꽉 차서 몇몇 분들은 밖의 계단에서 찬양을 드  
리기도 했다.

찬양 후에는 박혜원(영문 79) 동창 선교사가 메  
시지를 전했다. 박 선교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며 우리에게  
갖고 계신 꿈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알렸다. 먼  
저는 우리 각 개인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살며 각 가정, 교회, 국가,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시기 위  
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고, 예수님을 마음  
에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고 말했다. 그리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를 세상 속에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새내기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 세계 선교를 이루는 복의 근원  
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고 그러기 위해 신앙 공동  
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이화여대와 나  
리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 합심하여 뜨겁게 간  
구하였고, 기도 후에는 함께 손을 잡고 <기대>라  
는 찬송을 부르며 함께 의의 세대로 세워져 갈 것  
을 다짐하였다. 모든 순서가 마무리된 후에는 전  
체 사진 촬영을 하며 오늘의 은혜를 기록으로 남  
겼다.

총 181명이 함께 한 새신오의 열기가 이날 이후  
로도 이화여대에 계속 전해지며 우리 귀한 새내기  
들이 4년간의 학부 생활 동안 믿음의 세대요, 의의  
세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들이 되길 기  
대하며 기도한다.

글·이수진(조소 05)

# 모교 소식

## 2023학년도 공립 교원임용시험에 이화동창 291명 합격

2023학년도 공립 교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결과 모교 동창 291명이 최종 합격했다. 2022년 대비 모집 인원이 17%가량 축소된 가운데서도 올해 모교 출신 합격률이 상승했으며, 지역별로 상담·유아·특수·영어·과학·수학 및 미술·음악 분야 수석 및 차석도 다수 배출하며 우수한 성과를 이루었다.

교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 중 1차 교육학 및 전공 시험, 2차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및 수업 실연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된다. 모교에서도 사범대학(학장 황규호), 교육대학원(원장 박은혜),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마친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들이 응시했다.

모교는 올해 교원임용시험에서 중등교사 217명, 초등교사 47명, 유치원교사 9명이 합격했으며, 비교과교사(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18명을 포함해 총 291명이 최종 합격했다. 특히, 2023학년도 공립교원임용시험에서 모교는 지역별 수석 및 차석 합격자를 다수 배출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유아특수교육에서 박세현(특수

교육 23) 동창이 수석 합격, 성연주(특수교육 23) 동창이 차석 합격했으며, 초등특수교육에서도 이영주(특수교육 23) 동창이 수석 합격, 정 유(특수교육 22) 동창이 차석 합격하며 특수교육과의 강세가 이어졌다. 또한 미술교육에서도 나수아(서양화전공 22) 동창이 수석 합격, 이시영(교대원 미술교육 22) 동창이 차석 합격했으며, 지구과학교육 문성윤(과학교육 22년) 동창과 전문상담(비교과) 이다은(교육 23) 동창도 수석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이외에도 노채연(수학교육 21) 동창이 수학교육 차석, 이재원(영어영문학부 22) 동창이 영어교육 차석, 이에진(교대원 음악교육 21) 동창이 음악교육 차석을 차지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권유리(유아교육 23) 동창이 유치원교육 차석을, 경기 지역에서는 김혜지(과학교육 21) 동창이 생물교육 차석을 차지했으며, 충북 지역에서는 송예진(영어교육 22) 동창이 영어교육 차석의 영광을 안았다.

서울지역 특수학교(유치원)교사 임용고시에 차석으로 합격한 성연주 동창은 고등학생 시절 참여한 특수학교 자원봉사활동을 계기로 모교 특수교육과에 진학해 전공과목인 '유아특수교육' 수업과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지원하는 교육봉사 활동을 통해 유아특수교육자의 길을 선택했다. 성 동창은 "합격 후 약 2주간 신규 교사 연수를 들으면서 앞으로의 교직생활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현재

는 공립 단설 유치원에 발령받아 유치원 생활 및 업무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소감을 전하며 “선배님들처럼 능력 있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고 나아가 모든 어린이들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모교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을 위해 교사임용고시실 운영과 함께 현직자 선배 등 외부전문가 특강 제공, 수업시연 공간 및 피드백 제공, 심층면접 시뮬레이션 실시 등 임용시험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23학년도 공립교원임용시험에서도 모교 출신 졸업생

합격률 상승을 견인하고, 주요 분야 수석·차석 합격자를 다수 배출하며 국내 유일의 종합교원양성기관으로서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모교는 1915년 유치원 사범과를 설립하고, 1951년 국내 사립대학 최초로 사범대학을 설립하며 100여년간 우리나라 교원교육을 선도해 왔다. 모교는 국내 유일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연구·지원 센터’를 주관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창의교육 거점센터 사업’, ‘미래형 교수학습모델 개발 지원사업’ 및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인공지능 시대 미래교육 준비에 앞장서고 있다.

## 2023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환영 행사 개최

모교는 2월 24일(금)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2023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하고 3,547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입학식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은미 총장 등과 주요 보직자를 비롯해 신입생 3,000명이 참석해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또한 이날 모교를 찾은 가족들은 중강당과 ECC 이삼봉홀에 마련된 학부모 대기실에서 입학식 실황 영상을 시청하며 23학번 신입생의 입학에 축하했다.

김은미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23학번 신입생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이화가 비춰 주는 교육과 연구와 훈련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이화에 오기 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으나 이화이기 때문에 가능케 되는 크고 높은 꿈을 꾸라”

고 당부했다.

또한 “이화에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장의 시간을 가진 후, 훗날 졸업할 때 이 시대의 새로운 트레일블레이저(Trailblazer)이자 다음 세대의 롤 모델(Role Model)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부총장과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 학장 등 주요 보직교수 소개 이후 이화여대 남성교수 중창단의 축하와 이화브라스앙상블의 축주가 이어졌다. 모교 전·현직 교수들로 구성된 이화여대 남성교수



2023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환영 행사 개최

중창단은 1997년 결성된 이래 매년 입학식 때마다 K-pop 노래를 개사한 메들리 공연으로 신입생들에게 폭발적 호응을 얻어왔으며 올해도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다음으로 의과대학 고혜원 학생과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회과학대학 케이 카인 학생이 신입생을 대표해 이화의 자랑스러운 학생으로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모교에 입학한 학부 신입생은 총 3,547명이며, 약학대학 편입 입학생은 119명이다. 이번에 입학하는 새내기 중에는 학부생 케이 카인(심리학과) 학생 등 개발도상국 여성인재 전역 장학프로그램인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EGPP)을 통해 입학하는 장학생 4명을 비롯해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98명이 포함되어 있다. 학부 신입생들은 앞으로 4년간 15개 대학, 76개 학과 소속으로 모교에서 대학생활을 보내게 된다.

입학식 직후에는 신입생을 환영하기 위한 신입생 이화사랑 프로그램 'Welcome to Ewha'가 진행됐

다. 'Welcome to Ewha'는 신입생의 입학을 축하하고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토크쇼 기반의 프로그램이다.

4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스포츠뉴스 PD 이은재(사학 16) 동창이 사회자로 참여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은재 동창은 재학생 패널 임유림(경영학부 20학번)·조혜영(환경공학전공 20학번)·김규민(국제학전공 21학번)·신나영(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21학번) 재학생과 새내기를 위한 교내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대학 생활 노하우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었다. 또한, 비건화장품 '멜릭서' 대표 이하나(서양화 14) 동창이 졸업생 특별 게스트로 나서 신입생에게 대학생활, 창업 경험 등을 전했으며, 모교 응원단 PYRUS가 공연을 통해 신입생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이와 함께 학생처는 제모년에 입학하는 23학번을 위해 특별 제작한 토끼 인형과 2023 대학생활안내 책자 『I@EWhA』를 비롯해 이화그린 티셔츠, 멜릭서 립밤 등 다양한 기념품이 담긴 키트를 배부하며 23학번 신입생의 입학을 축하했다.

## 모교 美 'Building Bridges Award' 수상

모교가 태평양세기연구소(Pacific Century Institute)가 수여하는 제23회 'Building Bridges Award'를 수상했다. 김은미 총장은 2월 16일(목) 미국 캘리포니아 LA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학교와 학생, 교직원을 대표해 'Building Bridges Award'

를 수상했다.

태평양세기연구소(PCI)는 환태평양 국가와 사람들 사이에 교류를 증진하고 관계를 개선하고자 1980년대에 설립된 비영리 국제 조직이다. 태평양 지역의 각 대학에 아시아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20만 권 이상의 아시아 관련 도서를 보급하는 등 태평양 연안 국가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2000년부터는 "Building Bridges Between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 'Building Bridges Award' 수상

Countries and People"이라는 PCI의 미션에 공헌한 인물 또는 기관을 선정해 'Building Bridges Award'를 수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2016년)과 반기문 전 UN사무총장(2017년)에 이어 세 번째 수상이다.

태평양세기연구소는 모교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으로서 특히 조선 후기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소녀들과 여성들을 교육하고, 여성 환자를 치료하는 '보구녀관'을 설립한 전통을 이어 오늘날까지 '여성 교육' 및 '여성 보건과 의료'라는 두 축

의 임무를 공고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랑, 헌신, 나눔의 기독교 정신에 기초해 학문의 모든 분야에서 전세계의 여성을 교육하고 지도자로 양성하고 있는 교육 미션을 높이 평가해 'Building Bridges Award'를 수여한다고 설명했다.

김은미 총장은 미국 LA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화와 이화의 학생들, 교직원들을 대표해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히며, "137년 역사의 이화여대가 추구해온 비전에 따라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최초의 여성과 최초의 여성 지도자가 나오게 됐으며, 이화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여성들을 향해 멈추지 않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시상식 이후 2월 17일(금) 김은미 총장은 태평양세기연구소 이사회와 함께 세계적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 방문해 '지역 및 글로벌 과제 연구(Research for Regional and Global Challenges)'를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을 이끌었다.

## 여성학과, 설립 40주년 기념 행사 개최

여성학과(학과장 이은아, 사회 94/대학원 99)는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2월 18일(토) 교내 ECC에서 '이화여성학 이어-가다' 행사를 개최했다. 여성학과와 여성학과 동창회가 주최하고, 모교 한국여성연구원과 아시아여성학센터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여성학과 전·현직 교수, 동창과 재학생을 비롯해 130여 명이 참석했다.

모교는 1977년 한국 최초로 '여성학' 학부 교양과

목 개설을 시작으로 1982년 아시아 최초로 대학원에 여성학과 석사과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석사



이화여대 여성학과 40주년 기념행사

350명과 박사 52명의 인재를 배출하며 여성학 학문 발전과 여성 권익 향상 등 주요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 온 여성학과는 지난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한국 여성학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모교 이진정(화학 85/대학원 90, 간호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온라인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여성학 연구의 현황과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한설아(사학 93/대학원 98, Western Carolina University) 교수의 '여성운동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미국 가정폭력반대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김진숙(대학원 10, Emory University) 교수의 '디지털 플랫폼과 페미니스트 미디어/문화연구', 김화선(대학원 10, 연변대학교) 교수의 '중국의 여성학 연구 동향'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후 정정자(심리 83/대학원 90,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교수가 'Teaching Gender Studies from Cross-Cultural Perspectives in Australia'를, 모교 이은아(여성학과) 교수가 '여성학 연구의 쟁점과 흐름: 이화여대 여성학과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를, 민가영(수학 97/대학원 00, 서울여대) 교수가 "피해서사를 둘러싼 새로운 합리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 피해 서사의 대중화, 자격화, 특권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학술발표에 참여한 6명의 학자들은 모두 모교 여성학과 출신으로 구성됐으며, ZOOM을 통해 여성학과 재학생 등이 참여해 미국·중국·호주 등 국내외 사례 연구와 디지털 플랫폼 등 최근 이슈에 대한 여성학 연구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ECC 이삼봉홀에서 개최된 2부 행사는 김은미 총장의 축사와 김은실(영문 80)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김은미 총장은 축사를 통해 "이화가 한국 사회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여성학의 학문적

토대를 닦고 한국 여성학을 세계적 위상으로 올리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이화 여성학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수많은 담론과 실천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2월 정든 이화를 떠난 여성학과 김은실 교수가 '이화에서의 여성학 30년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을 통해 여성학 연구의 초석을 다져온 지난날과 앞으로의 여성학 연구 방향을 소개했다.

기조강연 이후에는 '페미니즘 실천과 여성학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정치·인권·사회운동·NGO·대학·교육 등 모교 여성학과 출신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먼저 정책/정치/인권 분과에서는 차인순(대학원 90)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문경란(대학원 89) 인권플러스 대표, 이보라(대학원 09) 국회 여성정책연구회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젠더 정치 지형, 언론과 인권, 국회에서의 여성학적 지식의 실천 등을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

사회운동/NGO 분과에서는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월경권, 반성폭력 등의 여성운동 현장의 경험을 공유했으며, 대학교육 분과에서는 김신현경 서울여대 교수, 김주희 덕성여대 교수가 대학의 여성학 교육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학과 동창들의 현장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는 패널 발표, 그리고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 시간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여성학 지식과 실천 방향이 모색됐다.

3부 '여성학과, 모든 날, 모든 순간' 행사는 여성학과 동창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 꾸며졌다. 동창들은 여성학과의 과거와 현재를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40년 역사와 네트워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 컴퓨터공학과 학부생팀 연구성과

### 《EEE Internet of Things Journal》 게재

컴퓨터공학과 학부생 캡스톤 디자인 결과물이 최상위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는 성과를 얻었다. 기수민(뇌인지과학과/컴퓨터공학과 복수전공) 재학생과 변규리(컴퓨터공학과) 재학생은 지난 1년간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로 모바일 실시간 시스템의 데드라인 조건을 충족하면서 배터리 소모를 줄이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배터리 소모량을 71.5% 줄이는 성과를 도출했으며, 해당 연구결과는 컴퓨터사이언스분야 상위 2%인 저명 학술지 《IEEE Internet of Things Journal》에 게재됐다.

최근 무인 항공기, 자율주행 자동차 등 모바일 기반 실시간 시스템이 늘어남에 따라 각 태스크들을 반드시 정해진 데드라인 안에 처리하면서 배터리 소모량을 줄이는 것이 시스템 설계의 중요한 미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모교 학부생 연구팀은 CPU의 처리 속도를 조절하는 동적 전압 조절 기술과 저전력 메모리를 이용한 태스크 배치 기술, 그리고 태스크를 원격의 엣지 서버에서 실행하는 오프로딩 기술 등 서로 다른 계층에서 연구되던 기술들을 단일 척도로 모델링하고 그 연관 관계를 최적화했다. 이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기수민·변규리 재학생

들 기술들은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별도로 연구되어 왔으며, 기존 연구들은 태스크 수준의 데드라인보다는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지연 시간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연구팀은 3종의 기술을 함께 적용했을 때 CPU, 메모리, 네트워크 장치를 아우르는 전체 시스템 경로에서 실행시간 및 에너지 효과의 상관관계를 정교하게 모델링하고 이에 기반해서 모든 태스크의 데드라인을 만족하면서도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스케줄링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해당 모델링을 통해 네트워크 환경 및 컴퓨팅 자원의 상황 변화에 맞게 스케줄링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본 연구를 담은 논문 「Co-optimizing CPU Voltage, Memory Placement, and Task Offloading for Energy-Efficient Mobile Systems」의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한 기수민·변규리 재학생은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무인항공기 등 실시간 시스템의 배터리 사용시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운 과제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해주신 교수님과 동료 덕분에 1년 동안 수행한 캡스톤 디자인의 결과가 우수한 성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교신저자로 본 연구를 지도한 반효경 교수는 “학부생의 성과로는 이례적인 결과이며,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진행하다 보니 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학계에 인정받는 것이 다소 수월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란 소프트웨어 개발 시 소스 코드 및 데이터를 공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 최근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시 각광받는 방식이다.

## 의과대학

회장 \_ 임선영(의학 82)

### 신임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

의과대학 동창회는 3월 4일(토)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제57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임선영(의학 82, 임선영 산부인과) 동창을, 수석부회장으로 피상순(의학 84, 안산우리정신건강의학과) 동창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백현옥 한국여자의사회장, 유경하(의학 84) 이화의료원 원장, 하은희(의학 87) 이화여대 의과대학 학장, 임수미(의학 93) 이대서울병원 원장 등의 내빈과 회원들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이날 '자랑스러운 이화의인 박에스터상' 수상식이 있었는데 이 상은 유신애(의학 69) 동창이 수상했다. 유신애 동창은 1969년 모교 졸업 후 미

국에서 소아과 전문의로 활동하다 1980년 경희의대 소아과 교수로 귀국하여, 한국여자의사회와 대한기독교여자의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특별히 탈북 어린이 교육 및 후원 사업에 크게 기여했다. '영원한 이화인'에는 임정애(73) 동창이, '올해의 이화인'에는 김예진(93) 동창이 추대됐다.

새로 회장으로 선출된 임선영 동창은 취임사를 통해 "이화 의대가 최고의 의대가 되고 이화의료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동반해, 전 동창이 자부심을 갖고 글로벌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선영 동창은 "역대 회장님들이 이룩해 온 사업 중 강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약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젊은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고 4,700여 동창들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선영 동창은 의과대학 동창회 수석부회장, 한국여자의사회 공보·계정·총무이사, 서울시의사회 재무이사, 감사, 의사협회 지식향상위원회 위원, 의료정책연구소 편집위원, 의사수필가협회 정보통신 이사, 서부지검 의료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임선영 동창은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 《한국신문》 수필 신인문학상, 코오롱 우정 선행 대상, 국민추천 국무총리상,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 의과대학 동창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을 선출한 의과대학 동창회

65명의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1억 9,500만 원의 동창회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한 재단법인 이화의대 동창회학술연구재단에서 유지현(의학 83)·허연(의전원 11) 교수에게 각각 1,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했고, 송도경(의학 08) 교수에게 의대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연구회 연구비로 1,000만 원의 학술연구비를 지급했다.

## 간호대학

회장 \_ 변은경(간호 83)

### 2023년 신년 모임

1월 17일(화) 12시에 켄싱턴호텔 '샹하오'에서 간호대학 동창회 신년 모임을 가졌다. 신년 모임에는 명예 교수, 전임 회장 및 간호대학 교수,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 부원장 외 동창회 임원 등 24명이 참석하여 간호대학 및 이대목동병원, 이대서울병원의 전년도 활동을 보고하였고,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신년 모임에서는 이화의료원에서 135주년을 기념하여 출간한 『이화 의료 이야기-보구녀관에서 이화의료원까지』를 준비하여 우리나라 간호교육의 뿌리를 되새기며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월 20일(월) 오후 3시 ECC 이삼봉홀에서 간호대학 메달 수여식 및 제65회 신입 동창 환영회가 열려 졸업생 76명과 학부모, 교수진, 신경림(간호 76) 대한간호협회장 외 동창회 임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하였다. 메달 수여식은 제65회 신입 동창 환영회와 함께 진행되었고, 황아현(간호 23) 신입 동창 대표의 입회 선서와 학장의 격려사, 동창회장



메달 수여식에 참석한 간호대학 동창들

의 환영사에 이어 간호 메달 수여, 나이팅게일 선서, 동창회장상 시상 등이 이어졌다.

모든 신입 동창들에게는 선배 동창들이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었고,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신입 동창들을 격려하며 간호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낼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 약학대학

회장 \_ 박병희(약학 84)

### 2023년 신입 동창 환영회

약학대학 동창회는 1월 5일(목)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신년하례식을 가졌으며, 이어 2월 21일(화) 오후 2시 이대 ECC 이삼봉홀에서 2023년 신입 동창 환영회를 개최했다.



'안양의집' 출신 음대생들의 축하 공연



신입 동창 환영회에 참석한 약학대학 동창들

1부에서 박병희 회장은 신입 동창들에게 약대 졸업과 약사 국가고시 합격의 축하인사를 건네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어려움이 많았지만, 올해는 다 함께 모여 신입 동창 환영회를 열 수 있어서 참으로 반갑고 흐뭇하다”고 하였다. “약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입 동창들에게는 1만여 명의 선배들이 있고, 우리 선배들은 졸업 동창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꿈과 포부를 이루고 사회에 공헌하는 이화인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약학대학 동창회는 졸업 동창들과 선배 간의 연결을 도와 주고 있다. 동창회가 바로 그 중간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동창 네트워크를 통해 졸업생들이 사회 각계각층 일선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훌륭한 선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3 이화약대 Powerful Alumni’ 인텍스를 공유하였다.

박병희 회장은 “동창회를 통한 선후배 간의 사랑과 협조는 앞으로 신입 동창들이 어디에 있어도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힘이 되고, 또 이는 우리 동창회의 자랑이자 중요한 목표”라고 하였다.

이어 설원복지재단 ‘안양의집’ (이사장 이정혜·철학 81, 고 사지숙 동창 장녀)에 동창회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안양의집’ 출신 음대생들로 구성된 앙상블 ‘바람’이 신입 동창을 위한 축하 연주로 신

나는 관악 4중주를 공연하였다. 연주가 끝나자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2부에서는 이영희(약학 85)·이경희(약학 88)·심현진(약학 19) 동창의 새내기 약사를 위한 주옥같은 강의가 이어졌으며, 3부에서는 올해 졸업 동창(약학 74회)들의 제1회 창립 총회가 열려 약학 74회 신입 임원진으로 장은경(약학 23) 대표, 정애라(약학 23) 부대표, 송원영(약학 23) 총무가 선출되었다.

## 디자인대학원

회장 \_ 김곡미(생미 87, 디대원 93)

### 신입 동창회장으로 김곡미 동창 추대

1월, 디자인대학원 동창회장으로 연암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김곡미 동창이 추대되었다. 18대 총동창회 사업부장, ‘올해의 이화인(이을) 연합회’ 사업부장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곡미 동창은 “디자인대학원(원장 최유미) 40주년을 기념하여 광고브랜드디자인전공 포함, 8개 전공의 회장단, 임원, 동창회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4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기념식, 엠블럼을 발표하고 디자인대학원 동창회의 역사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김곡미 동창을 신입 동창회장으로 추대한 디자인대학원 동창회

## 불어불문학과

회장 \_ 서동민(79)

### 송년회 통해 선후배 간 돈독한 정 나눠

2022년 12월 21일(수) 강남 리베라호텔에서 불어불문학과 송년회를 열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소원해졌던 동창들이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갖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이번 송년회에는 1기 졸업생부터 현 재학생들 까지 참석하여 3대 가족을 연상케 하는 만남을 가졌다.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 함께 게임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며 선후배 간 정을 돈독히 쌓았다.



2022년 송년회에 참석한 불어불문학과 동창들

## 독어독문학과

회장 \_ 이지연(75)

### ‘영원한 이화인’ · ‘올해의 이화인’ 선정

지난 2월 2023년 독어독문학과를 대표하는 ‘영

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으로 각각 민용자(67) 동창과 송원자(93) 동창을 선정하였다.

민용자 동창은 독어독문학과 1회 졸업생으로서, 일본의 전원 생활을 정리한 『미농의 수다, 고모노 통신』을 쓴 작가이다. 현재 남편과 함께 ‘청소년 도서 재단’을 운영하며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올해의 이화인’에 선정된 송원자 동창은 연세대에서 법학 석사를, 중앙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은 공인회계사로서 SK렌터카, LS일렉트릭 사외이사, 월드비전 비상근 감사로 활동하면서 현재 수원대학교 경상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3월 6일(월) 독어독문학과 동창회 임원진 모임이 있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열리지 못한 동창 모임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과 함께 올해 활동할 임원진을 구성하는 논의가 있었다. 동창 모임은 3, 6, 9월 네 번째 목요일에 정기 모임을 갖기로 하고 그 밖의 모임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임원진으로는 회장에 이지연 동창이 다시 추대되었고, 부회장은 황은신(75)·한순덕(76)·이정량(92) 동창이 맡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고문 남재은(68) 동창과 조행자(72) 동창이 참석해 올해 활동할 임원진을 격려해 주었다. 한편 전임 독어독문학과 동창회장이자 현재 장학위원회 회장이고



독어독문학과 동창회 임원진 모임

동창회의 역사를 함께해 온 남재은 동창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과 자료들을 공개해, 참석자들이 우리 독어독문학과 역사의 한눈에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개된 자료들은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도록 독어독문학과 동창 밴드에 올릴 예정이다.

## 기독교학과

회장 \_\_ 김미희(86)

### '응답하라 이화기독' 행사

2022년 12월 17일(토) 모교 대학교회에서 '응답하라 이화기독'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22학번 1학년 재학생부터 82학번 동창까지 40년의 간격을 뛰어넘어 YB와 OB가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감동적인 만남의 장이었다.

선배들을 만나고 싶어 하던 재학생들의 간절함과 어떤 방식으로든 재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



'응답하라 이화기독' 행사에 참석한 동창들

어 하는 졸업생 동창들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 모임을 이루어지게 하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고민이 많은 재학생들은 오래전 이미 자신들과 같은 고민을 경험했던 동창들이 졸업 후 현재는 사회의 일원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세의 겸손한 마음인 기독교 정신으로 이화를 빛내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이 모임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전통으로 성장시키기로 마음을 모았으며, 기독교학과 동창회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였다.

## 사학과

회장 \_\_ 한상혜(73)

### 간사회에서 동창회 활성화 논의

2022년 12월 22일(목) 인사동 선천에서 간사회가 열렸다. 송년회를 겸한 이날 모임에서는 여러 간사들이 꾸집한 선물을 준비하여 선후배 동창들과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고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업들을 회고하며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2월 23일(목) 인사동 선천에서 간사회가 열렸다. '올해의 이화인(졸업 30주년)'으로는 전북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송미령(93) 동창이, '영원한 이화인(졸업 50주년)'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의사로 활동 중인 양승희(73) 동창이 각각 선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하였는데, 젊은 동창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사학과와 긴밀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SNS를 활용

하여 동창들이 보다 쉽게 동창회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등 많은 의견들이 모아졌다.

## 물리학과

회장 \_ 이정신(89)

### 2022년 물리학과 송년의 밤 개최

2022년 12월 22일(목) 광화문 신라스테이에서 2022년 물리학과 송년의 밤이 열렸다. 코로나19로 중지되었다가 3년 만에 다시 열린 송년의 밤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였다. 8기 김경자(68) 동창을 비롯해 21학번까지 85명의 동창들이 참여하였고, 29기인 이정신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송년의 밤은 시작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동창회장인 물리 14기 남상택(74) 동창이 기탁한 '남상택장학금' 지급 증서 수여식과 8기 김경자 동창의 장학증서 수여와 팔순 축하도 함께 있었다.

많은 동창들이 이날 행사를 위해 경품을 기부하였고, 이 기부로 축하 공연, 단체사진 촬영, 게임 등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물리학과 송년의 밤 행사는 동창들의 환호와 함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한 물리학과 동창들

계 생활리에 막을 내렸다.

## 생명과학과

회장 \_ 김용연(87)

###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알찬 멘토링 활동 진행

황유경(89, 전 녹십자 전무, 현 YUYA바이오컨설팅 대표) 동창은 생명과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후배들의 진로 및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화생명멘토링팀을 구성하고, 2022년 7월부터 개별 및 그룹 멘토링, LG화학 기관 탐방 등의 알찬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였다.

2022년 12월 6일(화) 이화생명멘토링팀 멘토들은 지난 멘토링에 대해 자체 평가와 송년회를 겸한 모임을 통해 한 해를 뜻있게 마무리하였다.



오른쪽 하단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황유경·김용연·이다예(15)·황유선(15)·오혜윤(11)·김현정(03) 멘토

## 종교음악과

회장 \_ 오지영(88)

### 고(故) 원성희 명예교수 추모 예식

2022년 10월 12일(수) 선종한 고 원성희(성악 71) 명예교수의 추모 예식을 12월 8일(목) 새문안교회



고 원성희 명예교수 추모 예식에 참석한 종교음악과 동창들

언더우드홀에서 가졌다. 추모 예식은 200여 명의 종교음악과 졸업생들과 명예 교수, 음대 교수들,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장엄히 치러졌다. 특히 원성희 교수의 가르침을 받은 종교음악과 동창 합창단이 예배 찬양을 주도해 더욱 큰 감동을 주었다. 선교사로 한국에 와 선교와 음악 교육이 설립 목적인 이대 종교음악과의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한 원성희 교수의 삶을 종교음악과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추모 예식이었다.

고 원성희 교수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1885년 한국에 온 H. G. 언더우드 목사의 손부(손자 원일한 박사의 부인)이며, 호주장로교단(현 호주연합교회) 선교사로 1960년 파송되어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학생들, 특히 여성들을 교육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다. 더욱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이화에서 음악을 전공한, 모교 역사상 최초의 서양인 졸업생이다. 이후 미국 프린스턴의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음악 석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1998년까지 모교 종교음악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은퇴 후 2002년에는 서울 특별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될 만큼 한국을 사랑한 교육자였다.

90번째 생일을 앞두고 별세한 원성희 교수의 장례 예배는 2022년 10월 25일(화) 호주 멜버른 브라

이튼에 위치한 '트리니티연합교회'에서 김기윤 목사의 집례로 150여 명의 조문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치러졌으며 화장된 고인의 유해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 유가족의 품에 안겨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여 삶의 절반을 한국에서 함께한 원성희 교수의 존귀한 마음이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물기를 바란다.

## 서양화과

회장 \_ 송은주(86)

### 모교 방문을 겸한 정기총회

봄을 재촉하는 따스한 바람이 부는 2월 28일(화) 서양화과 동창회 정기총회가 있었다. 봄 향기 가득한 바람을 가르며 역사와 시간을 켜켜이 간직한 모교 교정에 위치한 진선미관의 한 식당에 50여 명이 넘는 졸업생 선후배들이 모였다. 참석한 동창들은 추억과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마음을 나누었다. 식사를 마친 후 이화가배당으로 이동하였다.

2022년의 활동보고 및 회계결산 보고가 있었다. 어려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아트페어, 바자회, 야유회, 선배님들의 구술 프로젝트 등 많은 활



정기총회를 갖고 후배들의 실기실을 둘러본 서양화과 동창들

등을 한 것에 대한 감사와 총평이 있었다. 회장을 비롯한 여러 임원들의 투철한 봉사 정신과 모교에 대한 자부심, 동창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감사의 표현으로 새 임원진들이 구 임원진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올해는 새로운 임원진으로 교체되는 해이다. 구 임원진들의 임기를 마치는 인사말과 새 임원진들의 소개가 있었다. 구 임원진들에게는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감사, 새 임원진들에게는 다음 회기를 잘 부탁하는 격려의 시간이 되었다. 광연(67) 동창의 후원으로 기념품 추천과 소정의 선물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모교 실기실 방문을 위해 조형예술관으로 이동하였다. 강애란(83) 교수의 안내로 학부 1학년부터 대학원생까지의 후배들이 예술가로서의 자질과 실력을 쌓아가는 물감 냄새 가득한 실기실을 둘러보았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3D 프린트 랩, 페이퍼 메일킹 랩 등도 살펴보았다. 작년에 동창회에서 기증한 실기실 이젤을 후배들이 잘 사용하고 있어 뿌듯함도 느꼈다. 각자의 예전 학교 생활의 기억을 소환해 보기도 하고, 많이 변화하고 발전된 학교의 모습을 보며 자긍심을 가지기도 한 실기실 방문이었다.

## 조소과

회장 \_ 오주연(90)

### 정기총회에서 신규 회장 이·취임식

2023년 운영위원회의 및 정기총회를 2월 23일(목) 논현동 아이비타워 이운정(91) 동창의 사무실에서 개최하였다. 이정자(66)·이종희(71)·황지선(74)·



이운정 동창의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하고 있다

고혜숙(77)·유민자(78)·임영란(78)·김영란(79)·김종희(79)·이선화(81)·하정희(81)·박신정(85)·이정희(86)·강선희(87)·강승주(87)·호혜란(88)·오주연·이운정(91)·이은이(93)·김양선(94)·박은선(98)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18대·19대 동창회 임원 이·취임식을 가졌다. 그동안 수고한 18대 조소과 동창회 회장인 박신정 동창에게 감사패와 기념 선물을 증정하였으며 2022년 회무보고, 재무보고 등을 진행하였다.

제19대 조소과 동창회 오주연(90) 회장의 취임 인사와 함께 40주년을 맞이하는 이화조각회의 전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2023년 사업계획안 등을 모색하며 오랜만에 선후배 간의 좋은 시간을 가졌다.

## 섬유예술과

회장 \_ 이상영(94)

### 감사 및 신입 임원 인준

2월 8일(수) 오후 12시 청담동 보메 청담에서 22대 섬유예술과 동창회 임원진 마지막 회의가 있었다. 전영선(88) 22대 회장 이하 임원진이 모여 팬데믹 상황에서 2년간 섬유예술과(예미회)를 위해 봉사

한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자리였다. 22대 임원진들은 예미회에서 기획한 전시회 및 바자회 등의 행사들을 통해 섬유예술과 동창들이 함께 동참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참석자는 전영선·이상영·최유리(96)·김은영(01)·장해림(02)·안은선(07) 동창이다.

2월 27일(월) 오후 12시 청담동 한우리 한정식에서 2022년 섬유예술과 결산 보고 및 활동과 회계 감사, 신임 임원 인준을 위해 역대 회장단과 이상미(88)·박희전(90) 감사, 전영선 전 회장, 신임 이상영 회장이 만남을 가졌다.

전임 임원들이 2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화와 섬유예술과를 위해 열정적으로 수고해준 것에 감사하고, 임원들 간의 역할 및 인수인계를 하였다.

신임 임원은 회장에 이상영 동창, 부회장 최유리 동창, 총무 이해나(96)·이혜원(96) 동창, 회계



섬유예술과 동창회 회장단 회의

안은선 동창, 서기 이지연(93) 동창, 홍보 김미진(93)·정현정(07) 동창이 맡게 되었다.

앞으로 신임 임원들이 이화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섬유예술과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이날 참석자는 이효범(61)·김혜순(66)·오복환(66)·이상복(67)·윤귀영(71)·박연실(77)·장영란(77)·박정례(79)·봉지희(85)·이상미·전영선·박희전·이상영 동창이다.

## 지회 소식

가나다순으로 게재

### 남가주(LA) 지회

회장 \_ 정현숙(체육 87)

#### 웃놀이와 함께하는 신년 모임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엔 남가주 지회의 다양한 행사가 각 부서별로 있을 예정이라 많이

기대된다. 올해 첫 행사로 1월 15일(일) 임원들과 각 부서 회장들이 장계원(문정 76) 전 이사장 집에서 모여 떡국과 새해 음식을 나누고 웃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월 18일(수) 이사회 신년회가 남궁봉일(체육 81) 신임 이사장 주관으로 열렸다. 화기에애한 분위기



LACMA에서 한국 근대사 전시회를 관람한 남가주 지회 동창들

에서 즐거운 대화, 맛있는 음식, 그리고 빙고 게임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냈다. 푸짐한 상품도 한아름씩 받아 다음 이사회 친목 모임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었다. 남가주 지회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이사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준 여러 후배들에게 감사드린다.

2월 14일(화)에는 동창 50명이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LACMA)에서 주최한 한국 근대사 전시회를 관람했다. 미국에서, 그것도 권위 있는 LACMA에서 한국 근대사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는 가운데 발렌타인 데이를 기념하며 임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초콜릿과 캔디를 함께 나누었다. 훈훈한 선후배 간의 만남이 귀한 전시회와 함께 더욱 뜻깊게 이뤄진 하루였다.

이화여대가 Pacific Center Institute 재단이 매년 수여하는 2023 Building Bridges Award를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2월 1일(수) Beverly Hills Hotel에서 열렸으며 김은미 모교 총장과 10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이화여대의 파워를 또 한 번 과시했다.

## 뉴욕 지회

회장 \_ 권순미(불문 85)

### 신년 하례식으로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 나눠

1월 28일(토) 맨해튼 소재 BarnJoo-Union Square점에서 80명이 넘는 뉴욕 지회 동창이 모인 가운데 신년 하례식이 열렸다. 1950년에 대학을 졸업한 대선배부터 2021년 졸업생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모여 떡국 잔치를 벌이고 동호회 조직과 신년 계획과 포부를 나누며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뉴욕 지회는 2023년도에는 동호회를 조직해 동창들의 뉴욕 생활을 더욱더 활기차게 하고 20대부터 90대까지의 회원들이 함께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한 80대의 동창은 이화여대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이라는 사실이 졸업을 하고 해가 지날수록 실감이 난다며 자축하였고, 함께한 20대 새내기들은 가족을 떠나 도전한 뉴욕 생활에 선배님들의 존재가 든든하다며 기뻐했다.

『여성 리더의 힘이 커뮤니티를 만든다』 도서에 등재된 뉴욕 지구의 7명의 여성 리더 중 4명이 모교 동창(임길재(문과 33), 김광희(화학 67), 위옥환(사복 69), 장화인(심리 69))이며 이중 한 명인 김광희 동창은 새내기 동창들에게 도서를 선물하였다. 도서를 선물받은 새내기 동창들은 김광희 동창과 함께 긍정 마인드의 상징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포즈를 하며 새해를 함께 축하했다.



신년 하례식에 참석한 뉴욕 지회 동창들

## 미네소타 지회

회장 \_ 김정은(체육 90)

### 봄꽃 색상 가득한 동창회

2월 4일(토) 김정은 회장 집(Vadnais Heights, MN)에서 입춘을 맞이하여 정기 모임을 가졌다. 주재강(화학 57) 동창과 이청빈(통계 17) 동창을 비롯, 세대를 아우른 16명의 동창이 참석했다. 발렌타인 데이를 앞둔 터라 붉은색이나 분홍색의 드레스 코드로 모인 이 모임에서 동창들은 준비한 음식과 다과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전했다. 특히나 학창 시절의 게임과 신세대 아이들의 안무 벌칙으로 이어진 시간에서는 모두 웃음꽃을 피웠다.

이날 참석자는 김선화(약학 66입)·김성은(국문 93)·김정은(체육 90)·김지연(수학 91)·박숙영(국제학부 07)·서윤순(작곡 79)·서은경(영문 91)·안수희(사복 95)·안종완(법학 62)·이청빈·이현수(동양 99)·주재강·차정혜(심리 77)·홍성주(경영 89)·황성숙(국문 68) 동창이다(가나다순).



입춘을 맞이하며 동창회 모임을 한 미네소타 지회

## 베이징 지회

회장 \_ 김정연(영문 98)

### 3년 만에 신년 모임

1월 11일(수) 중국 베이징 顺峰(顺景店)에서 동창

들의 새해를 여는 신년회가 열렸다. 이번 동창회는 강도 높았던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풀리면서 3년여 만에 이루어졌다. 방역에 대한 불안감 없이 열린 첫

동창회인 만큼 더욱 의미 있는 회합이었다. 베이징 지회는 계속되는 봉쇄와 규제 상황에서도 2022년에 총 9번의 동창회를 개최하며 동창들의 힘든 시간을 위로하고 서로 단합할 수 있도록 힘썼다.

이번 신년 모임에는 문채정(경영 96)·김정연·임울향(식영 99)·이현정(식영 02)·백인영(소비자 03)·김정민(국제사무 05)·송승희(심리 06)·이서연(커미부 06)·윤종연(중문 07)·민지윤(경영 11)·황근아(환경공학 11) 동창 총 11명이 참석하여 새해 덕담을 나누며 동창회를 시작했다. '반짝반짝 주렁주렁'이라는 드레스 코드에 맞춘 다양한 의상과 액세서리로 한껏 멋낸 동창들은 김정연 회장의 신년사와 함께 와인잔을 기울이며 새로운 한 해를 다짐했다. 특히 '앞서 주도하는 이화, 세계로 뻗어가는 이화'의 뜻을 담아 이화의 비전으로 채택되기도 했던 '이니셔티브 이화(Initiative Ewha)'로 주문 제작한 레터링 케이크는 동창들의 새해 결심을 힘차게 응원하는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

이어 지난 한 해 동창회 활동과 회계 내역에 대하여 전달하고 최다 참가상, 공로상 등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이번 동창회 참석을 끝으로 귀국하는 이현정 동창의 송별 인사는 아쉬움으로 가득했다.



'이니셔티브 이화(Initiative Ewha)' 레터링 케이크

맛있는 요리를 즐기며 서로가 준비해 온 작은 선물을 교환한 후, 1월 생일을 맞이한 문채정·이서연 동창을 축하하며 커피와 함께 케이크로 디저트를 즐겼다. 끝으로 복된 설날을 맞이하여 즐거운 웃음이 한 판을 즐기며 신년회를 마무리했다.

동창회보와 수첩, 탁상용 달력, 선물 교환 이벤트로 받은 선물과 웃음이 상품 등을 '주렁주렁' 양손 가득 담아가는 동창들의 얼굴은 다음 2월 동창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반짝반짝' 빛났다.

## 보스턴 지회

회장 \_ 김지영(교육 82)

### 웃음꽃 가득한 연말 파티

2022년 12월 3일(토) 벌링톤에 위치한 The Village of Seven Spring 클럽하우스에 연말파티를 위해서 동창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였다. 오랜만에 동창들과 가족들이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행사를 위해서 원근에서 40여 명이 모였다.

총회를 통해서 일 년간의 활동 동영상과 한 해의 살림살이를 보고 받았다. 지역 장학생에게 장학금도 수여하고, 10월에 보스턴에서 개최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준비에 대한 보고도 나누었다. 비



연말 파티를 통해 하나 된 보스턴 지회 동창들

록 작은 지회지만 열심히 후원하고 준비하는 우리 동창들이 참 감사하고 자랑스러웠다.

보스턴 동창들의 대학 시절 사진들을 모아 이수용(생명 06) 동창이 제작한 <어느날 학창 시절>의 동영상은 모두의 가슴에 찡한 감동을 자아냈다. 대학 시절의 그리움도 추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창이란 그 일치감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곧이어 푸짐하게 차린 온갖 산해진미를 맛보고, 년센스 퀴즈로 두뇌를 훈련시키고, 라인댄스로 다시 한 번 몸의 리듬 감각을 일깨우고, 청백전의 신나는 게임으로 마음을 활짝 열었다. 양키 스왑으로 선물을 하나씩 뽑았는데, 저마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좋아하며 감사하였다. 양키 스왑의 규칙상 원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바꾸어 가질 수도 있는데, 한 명도 타인 것에 눈길을 주지 않는 배려 깊은 우리 동창들이었다.

또 Raffle 티켓을 판 금액은 가을에 있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봉사자용 티셔츠 제작비에 보태기로 했다.

이번 파티의 드레스 코드는 빨강이었는데, 패션쇼를 하며 저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세련된 멋을 과시했다. 정말 소녀로 돌아간 듯한 패션쇼의 포즈들이 너무나 재미있어 웃음꽃이 만발하였다. '최고의 Red' 상은 멀리 이집트에서 사온 멋진 드레스를 입고 온 동창이 받았는데, 실은 집에서 편안히 입을 홈드레스라고 하여 더욱 웃음을 자아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같이 등글게 손을 잡고 <까치 까치 설날은> 노래와 함께 석별의 정을 나누고, 새해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모두 "Happy New Year" 인사로 연말 파티를 마쳤다.

## 세인트루이스 지회

회장 \_\_ 최혜영(생미 86)

### 한 해를 정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파티

1월 18일(수) 킹도 레스토랑에서 한 해를 정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연말 파티를 최경선(영문 62) 이사장과 부군 김승희 박사의 전적인 후원으로 열었다.

또한 세인트루이스 지회 동창들은 49년 동안의료 진료를 하고 은퇴하는 정성주(성악 68) 동창의 부군 김덕진 박사와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남진우(간호 73) 동창의 부군 이신웅 박사를 축하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날 신년 모임에서는 경품을 추첨하면서 동창과 이화 사위들의 2022년 혹은 평생을 통해 잊지 못하는 추억과 소원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시 태어나면 누구와 결혼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은 이화 사위들은 망설임 없이 지금의 아내와 하겠다고 답하여 이화인의 자부심이 더욱 높아졌다.

2월 22일(수) 2022년 진선미 회기를 마치고, 2023년 진선미회를 새로 시작하기 전, 킹도 레스토랑에서 교제하며, 동창들의 소식과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나누었다.



부부 동반으로 연말 파티에 참석한 세인트루이스 지회 동창들

## 시애틀 지회

회장 \_\_ 신인선(외국어교육-불어전공 85)

### 소그룹을 통한 다양한 모임 활성화

시애틀 지회는 2022년 송년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있었던 팬데믹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조심스레 대면 만남을 시작하였다. 2022년 12월 17일(토) 시애틀 소재 호텔에서 있었던 송년회에는 동창과 부군을 포함하여 총 67명이 참석하여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교가 제창과 함께 시작된 1부 행사는 지난 한 해의 회계와 행사 보고, 워싱턴대학에서 한국학 석사과정에 있는 장학금 수여자 김현정 학생으로부터의 영상 편지, 그리고 신규 임원 소개로 진행되었다. 식사 후의 2부 행사에서는 산타 할머니·할아버지 의상 선발대회를 통해 동창과 부군들의 기발하고 독창적인 즉석 변신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이화 역사에 대한 재미난 게임과 푸짐한 상품으로 그동안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웃음꽃으로 활짝 펼 수 있었다.

또한 수년간 그래왔듯이 이화국제재단 후원, 장학금 수여를 통한 워싱턴대학 한국학 후원, 그리고 한인사회 불우이웃돕기 기금 모금에 참여하여 이화의 이름을 빛내었다.

2023년 행사는 신년 하례회로 첫 모임이 시작



송년회에 참석한 시애틀 지회 동창들

되었다. 2월 4일(토) 페더럴웨이 소재의 식당에서 진행된 이 모임에는 총 32명이 참여하여 한 해의 동창회 계획을 함께 나누고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전 동창을 위한 다양한 행사(신년회, 봄 꽃놀이, 연 2회 음악 강연, 여름 야유회, 송년회 등)는 물론 소그룹을 통한 다양한 모임을 더욱 활성화하여 동창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5개의 소그룹(합창반, 골프반, 사진반·등산반, 차선방-차와 선율이 흐르는 사랑방, Arts 모임)이 형성되어 있으며, 각 그룹의 리더가 중심이 되어 한 해의 계획을 만들고 활동할 예정이다. 올해도 시애틀 지회의 다양한 활동이 이화의 이름을 더욱 빛내고 많은 동창들의 즐거운 만남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 싱가포르 지회

회장 \_ 박 현(정외 88)

### 이임식과 새 회장단 출범

2022년 12월 5일(월) 탕글린 클럽에서 오페라 가면 무도회 테마로 송년 모임을 가졌다. 특히 2022년 새로 가입한 신입 동창들이 많이 참석하여 새로운 만남의 자리가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방시례(컴공 09)·최수현(국문 15) 동창의 사회로 시작한 오락 시간은 마한나(심리 13) 신입 동창의 뮤지컬 노래 공연, 각종 게임, 베스트 드레서 선발 등으로 시종일관 웃음과 박수로 가득하였다. 이번 송년 모임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봉사를 해준 여러 선후배 동창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3년 1월 12일(목) 신년 모임으로 한식 오찬을 함께하였다. 여러 선후배 동창들과 새해를 함께 맞아 행복했다.



송년 모임에 참석한 싱가포르 지회 동창들

2월 15일(수) 여러 동창들의 성원과 도움 덕분에 이임식을 성대히 마칠 수 있었다. 특히 멋진 장소에서 뜻깊은 이임식을 할 수 있도록 애써준 양수임(국제사무 86) 동창에게 감사드린다. 재임 기간 동안 항상 응원해 주고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준 선후배 동창들과 박 현 회장 및 김규연(중문 00)·박세경(국제사무 08) 총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여러 해를 거둬하며 탄탄한 동창회를 이끌어 주고 조언과 응원을 보내준 전임 회장단인 현 수정(생미 88)·조혜숙(영문 89)·박진경(교공 91) 동창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새로운 모습으로 멋지게 지회를 이끌어 줄 윤영미(경영 95) 신임 회장과 김효영(경제 12) 총무, 새로 출범될 차기 임원진도 항상 지지하며 응원할 것이다.

## 영국 지회

회장 \_ 홍시내(커미부 02)

### 3대가 함께한 설날 모임

8개월짜리 아기가 긴 테이블 가운데에 딱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이곳은 영국 지회의 신년회가 열리는 런던의 핫한 한식당. 한 동창이 데려온 이 아기가 오늘의 최연소 참석자다. 손주들 봐주던 짬으로 대선배가 아기를 달래 주고, 10~20대



신년회에 참석한 영국 지회 동창들

자녀를 둔 엄마들이 아기 밥을 챙겨준다. 미혼의 동창들도 뒤질세라 아기에겐 재물을 부린다. 덕분에 아기 엄마는 편히 식사를 마칠 수 있었다는 후문. 영국 지회의 매력은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다. 한국의 명절마다 이렇게 모이니 더욱더 영국에 있는 가족 같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영국 철도 파업이 있는 날이었다. 그래서 오는 길이 험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신입 회원도 두 명 있었다. 각자 자기 소개를 하고,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국에서 오래 산 동창들의 지혜와 영국 생활에 적응해 가는 동창들의 질문이 교차하고, 한글 학교에 방문한 손흥민 선수의 사진과 알프스에 간 손주들 사진이 교차했다.

모교에서 온 새해 선물인 달력과 빨간 수첩도 전달했다. 하지만 선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동창들과 즐겁게 보낸 오늘도 모교가 우리에게 주는 새해 선물이었다.

## 이탈리아 지회

회장 \_\_ 김정임(대학원 88)

### 인문학 강의와도 같았던 미술관 투어

이탈리아 지회는 2023년 첫 모임을 로마의 주요

미술관 중의 하나인 보르게세 미술관(Galleria Borghese) 투어로 정했다. 낮에는 따스한 봄기운마저 느껴지는 2월 17일(금)에 10명의 동창들이 모였다. 이른 아침 미팅 시간에 맞춰서 미술관 앞에 모인 동창들의 얼굴에는 여행을 떠날 때처럼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회 모임에 참석하는 동창 세 명이 있어서 더 반가운 만남이었다.

베테랑 가이드이자 아트투어 전문가로 활동 중인 김미란(철학 88) 동창이 재능기부를 해서 평생 기억에 남을 미술관 투어를 선물해 주었다. 생동감과 열정이 가득 찬 김미란 동창의 설명은 동창들을 타임머신에 태워서 환상의 신화 세계, 성경 이야기,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기의 이탈리아로 데려갔다. 그리고 때로는 흥미 넘치는 인문학 강의실에 있는 것만 같았다. 미술 작품에 대한 설명에만 그치지 않고 신화, 철학적 접근으로 사색하게 만드는 투어였다.

라파엘로와 카라바조의 그림들과 베르니니와 카노바의 대리석 조각 같은 유명하고 아름다운 미술품을 몇 발자국 거리에서 감상하면서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인문학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설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작품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다.

투어가 끝나고 미술관 밖으로 나오자 우리를 반



보르게세 미술관 투어 모임을 한 이탈리아 지회

기는 눈부신 정오의 햇살은 감동에 흠뻑 빠진 동창들의 마음처럼 밝았다. 선후배가 함께 미술품을 관람하면서 감탄하고 감동하고 공감했던 시간은 모두에게 소중한 기억될 것이다.

## 인천 지회

회장 \_\_ 김자영(교육 82)

### 언제나 가족 같은 특별한 동창들

한 달에 한 번, 매달 23일에 공식 모임을 가지는 인천 지회는 1월 23일(월)이 설날 연휴인 관계로 2월 23일(목)에 새해 첫 만남을 가졌다. 2022 '영원한 이화인'으로 추대된 조애진(커미부 66) 동창이 집으로 초대해 준 덕분에 함께 식사를 나누고 우리에게 친근한 가곡을 함께 불러보는 특별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

인천 지회는 1963년 졸업 동창부터 2014년 졸업 동창까지 세대와 전공을 불문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모임을 이어오는 지회이기에 오랜만에 동창의 집에서 가지는 모임이 더 소중하고 특별하게 느껴졌다.

이날 인천 지회는 임원 이·취임의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동창들의 근황과 안부를 나누었다.



조애진 동창의 집에서 모임을 가진 인천 지회 동창들

## 일본 지회

회장 \_\_ 고정희(장미 74)

### 한인타운에서 동창 모임

3월 4일(토) 김운천(평교원 96) 자문이 경영하는 한인타운의 민속촌에서 2023년도 동창회가 있었다. 2022년도의 활동 보고와 함께 2022년 12월 '대한민국 공로봉사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김운천 자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고나리(커미부 05) 동창, 생일을 맞은 가야금연주자 김열(한음 02) 동창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창회에 처음 참석한 구은경(서양 93) 동창, 오랫동안 참석했던 정태영(생미 69) 고문, 축하 케이크를 제공한 송미연(커미부 86) 부회장, 고나리 동창의 귀여운 딸 유미리와 부군도 참석하여 동창회를 빛내 주었다. 동창들은 민속촌의 맛난 음식을 나누면서 즐겁고도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동창회에서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낸 일본 지회 동창들

## 제주 지회

회장 \_\_ 고화련(독문 69)

### 5월 모교 방문 준비 모임

2월 22일(수) 제주 지회 동창들은 2023년 첫번째 정기 모임을 제주늘봄에서 진행했다.



모교 방문을 앞두고 준비 모임을 가진 제주 지회 동창들

올해의 행사 계획 중 5월 동창의 날 모교 방문에 대한 의견 개진과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졸업한 지 수십년 만에 모교를 방문하는 정종순(교육 63) 동창의 학창 생활을 들을 때는 흑백사진 속의 멋쟁이 이대생을 머릿속에 그리며 추억에 빠졌고, 기숙사 생활을 해보지 못한 조선영(수학 80) 동창은 기숙사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는데 이번 모교 방문시 기숙사에서 하룻밤 지내게 되었다는 계획을 듣고 설렌다고 하여 예전 기숙사와 요즘 기숙사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예전 4인실은 요즘 찾아볼 수 없고 주로 혼자 생활하는 학생들의 성향에 맞춰 1인실이 대세라고 하니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창회의 연회비와 평생회비에 대한 납입도 독려하여 작게나마 모교 사랑을 실천하기로 하였다.

## 진주 지회

회장 \_ 염선행(생미 83)

### 크리스마스 파티 열고 사랑 나눔

진주 지회는 송태좌(가정 60) 명예 지회장의 끈임없는 노력과 봉사로 30대부터 90대까지 함께하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한 진주 지회 동창들

는 가족 같은 지회이다. 1968년부터 시작되어 50여년을 이어오며 진선미를 실천하는 덕목을 갖춘 이화인들의 모임으로, 현재는 35명의 동창들이 매달 첫째 수요일에 정기 모임을 하고 있다.

일상의 회복이 다가오면서, 2022년 12월 7일(수) 염선행 회장의 집에서 이화 동창들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20여 명의 동창이 함께하였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 서로의 안부도 묻고, 선물도 주고받았다. 커피 향기와 더불어 사랑의 온도는 상승하였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신나고 사랑이 넘치는 해피 크리스마스 파티였다.

선배는 후배에게 덕담을, 후배는 선배에게 존경과 감사를 나누고, 선물 박스를 열고, 사진도 찍으며 2022년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장식하였다.

## 청주 지회

회장 \_ 김광주(의학 84)

### 사랑나눔 음악회 및 바자회 개최

청주 지회는 2022년 12월 10일(토) 블루아트홀에서 위드코러스 여성합창단(총 22명 중 지휘 허성희(피아노 82) 동창, 반주 강보은(종음 98) 동창 등 이화 동창 14명) 사랑나눔 음악회 및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 많은 동창들과 그 친지들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한 청주 지회 동창들

까지 물심양면 후원을 하여 수익금 500만 원을 충북대병원 저소득층 소아암환우 진료비로 기부하였다.

또한 12월 30일(금)에는 청주 월오동 소재 모자 가족복지시설인 청주 해오름 마을을 방문해 사랑의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 토론토 지회

회장 \_ 김수연(물리 86)

### 신년 임원단 회의와 햇불예배

1월 7일(토)에 신년 임원회를 전임 회장 및 신임 회장과 임원단, 그리고 각 동호회 부장들이 함께 만나 새해 사업계획을 세웠다. 의욕에 찬 신임 임원들과 덕담을 나누며 한 해 동창회 행사 계획을 세우고 또한 동창회 의 바라는 점 등의 의견을 나누는 감사의 시간이었다.

2월 11일(토)에는 첫 햇불회 모임을 최인숙(영교 74) 햇불회 부장 집에서 가졌다. 29명의 동창들이 모인 가운데 이화 비빔밥으로 식사를 한 후 예배를 시작하였다. 윤지숙(중문 92) 동창의 기도, 화음 동호회의 <Amazing Grace>, <Pachelbel's Canon> 특송과 정은주(법학 85) 전도사의 '와서, 보아라' 라는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었다. 2부 순서는 이진희(대

학원 07) 동창의 '스마트 폰으로 스마트하게'라는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스마트 폰의 기능들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고자 애쓰는 이화인답게 모임에는 각자의 컵이나 텀블러를 가져오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김현순(피아노 56) 동창의 『아이들을 통한 성장』과 윤경남(영문 58) 동창의 『우순소리』 서적 출간을 축하하는 순서도 가졌다.

2023년 이화 사랑이 가득한 새로운 임원진들과 화음회, 화관회, 기타반, 토요일 걷기반, 또 새로 생긴 판소리반 등의 동호회들과 계획된 많은 행사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햇불회 모임을 가진 토론토 지회

## 파리 지회

회장 \_ 박현선(의직 91)

### 2022년 송년 총회

2022년 12월 3일(토) 파리 한식당 삼식에서 33명의 선후배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 총회를 가졌다. 한 해 동안의 동창회 활동과 회계보고, 차년도 예산 계획을 공유하였고, 처음으로 '동창 간의 대화'라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통역가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박경애(외국어교육-불어전공 76) 동창



원로 선배들과 함께 설 모임을 가진 파리 지회 동창들

과 프랑스 다국적 대기업에서 임원직으로 은퇴한 함명화(불문 81) 동창이 다양한 경험담을 동창들에게 공유해 주었으며 선후배 간의 정보 교류의 장으로 이어졌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임원진은 소모임 운영 및 대면 총회의 '동창 간의 대화'를 통해 동창 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기로 하였으며, 12월 27일(화)에는 온라인 금융 강연에 연사를 초대하여 동창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파리 시내 화랑에서 파리 지회의 최고령 회원이고 조형예술대학 1회 졸업생인 박인경(동양화 49) 동창의 최근 작업을 포함한 작품들로 구성된 개인 초대전 'Dance of Brush'가 마련되었다. 박인경 동창은 한국 근현대미술계의 중요 여성화가 중 한 명으로 지난 60여 년간 프랑스에서 작품 활동 및 제자 양성을 하였다. 전시회 개막 행사에 임원진과 동창들이 참석하여 대선배님께 존경을 표하며 화환으로 전시회를 축하하였다. 'Dance of Brush' 초대전은 2월 4일(토)부터 3월 4일(토)까지 진행되었다.

2월 17일(금) 파리 시내 한식당에서 원로 선배들을 모시고 설 모임을 진행하였다. 임원단을 포함하여 총 14명의 동창이 참석하여 지난번 추석 모임에 이어 고향의 따스함을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포틀랜드 지회

회장 \_ 김미진(도예 79)

### 3년 만에 모인 동창회

2022년 6월 28일(화) 오랜만에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팬데믹으로 모두 외출도 못하고 외식도 못하는 사이에 지병으로 강정애(생미 63) 동창이, 노환으로 김양희(사회 57) 동창이, 코로나19로 김평숙(간호 69) 동창이 소천하셨다.

그 외 몇몇 동창은 코로나19로 고생한 이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이었다. 이번 모임에는 젊은 동창들이 많이 나와서 한층 더 자리를 빛내 주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연말에 모이기로 하고 동창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헤어졌는데, 연말에 독감이 유행하여 모이지 못하고 꽃피는 춘삼월에 모이기로 하였다.

한편 보스톤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인텔에 취업하여 동창회원이 된 석지숙(화학 12) 동창의 환영식은, 석지숙 동창이 점심에 시간을 내기 어려워 임원진만 만난 가운데 환영식을 하였다.

2023년에는 회장도 새로 뽑고, 사회 봉사활동도 하기로 신년 계획을 세워 보았다.



3년 만에 대면 모임을 진행한 포틀랜드 지회

## 필라델피아 지회

회장 \_ 오성실(영문 68)

### 연말연시도 동창회 모임과 함께

2022년 12월 성탄 축하 및 송년회 모임을 하였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필리델피아 지회 동창들

다. 7월에 시작된 소그룹인 이대 중창단의 음악 순서가 있었고, 모두 함께하는 싱얼롱 순서도 있었다. 특히 이화의 사위들이 함께하는 자리여서 더 새롭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중창단 지휘로 양경자(성악 65) 동창이 열심히 인도해 주었다.

2023년 2월, 새해 첫 동창회는 뉴저지에서 가졌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동창이 수월하게 참석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새로운 얼굴들도 있었고, 모두 서로 반갑게 만났으며 뜻깊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김영애(국문 62) 동창이 '수필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는 모두 진지하게 주목하였고, 남광희(의직 73) 동창의 '맛있는 약밥' 레시피 소개에는 질의 응답이 오갔다. 마치 약밥을 맛보는 시간 같았다.

## 호치민 지회

회장 \_ 이인혜(식영 97)

### 2대 임원진 취임식 치러

아침, 저녁으로 맞이하는 선선한 바람에 상쾌함이 느껴지는 호치민의 봄이다.

호치민 지회는 2023년에 들어서며 새로운 임원진을 맞이하였다. 2020년 6월, 회장 원귀정(영문

89) 동창을 비롯한 총무 김태현(경제 06) 동창, 회계 이민아(정의 08) 동창, 이 세 명의 초대 임원진으로 시작한 호치민 지회는 어느덧 53명의 동창이 속한 조직이 되었다.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동창회를 이끌어 준 1대 임원진의 노고를 이어받아, 2대 임원진을 맞이하였다. 2대 임원진은 회장 이인혜 동창, 총무 신주민(한음 01)·주선영(피아노 01) 동창, 회계 박숙현(통계 01) 동창이다.

2월 21일(화)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2021년 1월 첫 신년회를 개최한 이래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두 번째 신년회로 총 22명이 참석하였다.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동창들도 대거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었다.

이날 임원진 이·취임식 및 신규 동창회원 소개, 해금 및 피아노, 성악이 어우러진 축하 공연, 동창들의 협찬을 통한 럭키 드로우 행사가 이루어졌으며, 신년회를 통해 그동안의 소식도 전하며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모교 교표로 장식한 케이크의 커팅은 막내 학번인 정보미(피아노 11) 동창의 세 살 귀염둥이 딸도 함께해 더욱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앞으로 새로운 임원진과 더불어 동창회가 더욱 번성하여, 호치민 동창들에게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한다.



신년회에 참석한 호치민 지회 동창들

## 25만 이화 동창 여러분, 후원이사 가입을 통해 이화사랑의 마음을 보여 주세요

총동창회는 25만 이화 동창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에 힘입어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및 모교발전기금 마련 대바자회와 '이화인의 밤' 개최 등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화동창》 회보 제작, 동창의 날 행사를 통해 '영원한 이화인' 및 '올해의 이화인' 추대,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 등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이화 동창을 소개하고 격려하며 섬김과 나눔의 이화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모교 발전 및 총동창회 후원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화 동창 여러분께 총동창회 후원이사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총동창회 후원이사는 2년 임기이며, 연 100만 원(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총동창회는 후원이사 여러분을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모교에서도 후원이사님들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자종합대학을 넘어,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이화여자대학교의 동창으로서 이화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후원이사 가입을 통해, 이화의 기독교 정신을 계승하고 진선미의 이화 정신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총동창회 사무실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고(故) 사지숙(교육 55) 동창

2019년 '아름다운 이화인' 상을 수상한 사지숙(교육 55) 동창이 3월 2일(목) 소천하였다. 사지숙 동창은 아동 보육시설 '안양의 집'과 '안양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는 설원복지재단 상임이사로서, 전 쟁고아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에 불우한 이동을 보살피는 등 지난 70여 년간 사회복지 분야에서 교육자로서 헌신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2010년 보건복지부 장관상, 2018년 사회복지 사업부문 동백장 국민훈장을 수상하였다.



사지숙 동창

장혜원(기악 62) 동창

모교 명예교수 장혜원 동창이 제 12회 이미륵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 1세대 여성 피아니스트인 장혜원 동창은 음악을 통해 한국과 독일의 문화예술 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미륵상은 한독협회와 독한협회가 1999년 이미륵 박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제정한 상이다. 시상식은 2월 21일(화) 주한독일문화원에서 열렸다.



장혜원 동창

장혜원 동창은 36년 이상 모교 교수로 재직하였고, 음대 학장 및 음악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1991년에는 한국 피아노학회를 창립해 한국의 피아노계 발전은 물론 세계의 음악인들과도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2010년에는 한독 음악 교류 활성화와 전 세계 음반계에 큰 명성을 쌓은

공로를 인정받아 독일 정부로부터 십자공로훈장을 받았다.

허윤정(불문 64, 허승실) 동창

허윤정 동창이 2022년에 출간한 두 번째 수필집 『나의 13월』로 제 39회 한국크리스천문학 대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2022년 12월 1일(목)에 한국크리스천문학가 협회에서 있었다.



허윤정 동창

원문자(동양 66) 동창

원문자 동창이 2월 23일(목)부터 3월 5일(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소재 금호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고 한지에 채색한 '사유공간(Speculation Space)' 연작을 선보였다. 모교 명예교수인 원문자 동창의 80세를 기념하여 모교 동양화와 동창회의 기획으로 열린 개인전으로, 신작 20여 점도 선보여 동창들과 미술 애호가들이 많이 관람하였다.



원문자 동창

김화숙(무용 71) 동창

2022년 10월 15일(토) 정음 영모재에서 예술감독 김화숙 동창이 이끄는 김화숙&현대무용단 사포의 제35회 정기공연 겸 사포 공간탐색 프로젝트2 <차마 그곳이 잊힐 리야>(연출·대본: 김화숙) 공연을



김화숙 동창

진행했다.

김화숙&현대무용단 사포는 2020년부터 새로운 공간을 찾아 떠나는 '공간탐색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첫 번째 '원주의 산속 등대'에 이어 두 번째 장소를 '정읍 영모재'로 정하고 시간을 더듬으며 풀어내는 춤사위를 통해 공간의 의미와 시간 속으로 관객을 초대했다. 김화숙&현대무용단 사포는 앞으로 이어질 공간탐색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공간을 발견하여 무용 작품을 통해 공간의 역사성과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창작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강석경(조소 74) 동창

소설가 강석경 동창이 37년 만에 소설집 『툰드라』를 출간했다. 강동창은 장편소설 『미불』, 『신성한 봄』, 산문집 『일하는 예술가들』, 『이 고도를 사랑한다』 등을 꾸준히 발표해왔지만, 단편을 묶은 책은 『숲속의 방』(1986년) 이후 처음이다. 신간 『툰드라』에는 『석양꽃』부터 최신작 『툰드라』까지 총 8편의 단편이 실렸다.



강석경 동창

### 이주영(영문 75) 동창

2022년 12월 27일(화) 남촌재단 고문 이주영 동창이 모교 후배를 위해 남촌장학금 1억 원을 기부했다. 2008년 신설된 남촌장학금은 매 학기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남촌재단의 꾸준한 기부로 현재까지 기부액이 11억 원을 넘겼다.



이주영 동창

### 강혜련(경영 76) 동창

강혜련 동창이 3월 31일(금)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아

시아나항공 사상 첫 여성 사외이사에 선임되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강혜련 동창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ESG 경영 강화 차원'이라고 전했다.



강혜련 동창

### 김진애(한음 79) 동창

김진애 동창이 회장으로 있는 김종기류 가야금산조 보존회는 2월 16일(목) 대전전통나래관 5층 다목적강당에서 '김종기류 가야금산조의 특징과 전승가치'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진애 동창

대전 지역은 김종기류 가야금산조 전승의 중요한 터전이 되었으며, 김진애 동창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김종기류 가야금산조를 공부하고 김종기류 가야금산조 보존회를 만들어 후학 양성과 공연을 진행하는 등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손경숙(섬예 80) 동창

손경숙 동창이 서울 무형문화재 12호 자수장 전승교육자로 지정받았다. 1988년 한국 전통자수 전승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손경숙 동창은 약 35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보낸 후 2022년 5월 서울 무형문화재 12호 자수장 전승교육사로 지정됐다. 현재 서울 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에서 전수생 양성과 전시로 활동하고 있다.



손경숙 동창

### 이경혜(외국어교육-불어전공 80) 동창

(사)문화복지공감 대표 이경혜 동창이 3월 7일(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 임명되었다. 이경혜 동창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프랑스 툴루즈 제1대학교 대학원에서 현대불문학 박사과정(DEA) 학위를 받고 귀국해 강의를 하다가 40세에 투병 후유증으로 시력을

없었다. 부산점자도서관장, 한국 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공동대표, 국무총리실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실무추진위원, 부산시 비례대표 의원 등을 역임하였다.



이경혜 동창

### 염선행(생미 83) 동창

2022년 12월 4일(일)부터 한 달간 염선행 동창의 10번째 개인전 'Merry Christmas'가 울트라블루 갤러리의 초대로 개최되었다. 크리스마스과 겨울을 주제로 한 작품들로, 12월 23일(금) 오후 7시에 는 캐롤 위주로 기획한 작은 음악회와 함께 작가와 의 만남의 시간도 진행하였다.



염선행 동창

### 전정희(정의 83) 동창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정희 동창이 제15회 의암 주논개상에 추대되었다. 의암 주논개상은 논개의 애국충절 정신을 선양·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가 2007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논개상에 추대되면 장수 군민의 이름으로 총의관과 논개상 증서,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 전정희 동창은 30여년 간 여성 인권과 역량 강화, 지위 향상에 힘써왔다. 의암 주논개상 추대식은 의암 주논개제전 및 장수 군민의 날인 2022년 9월 28일(수) 진행됐다.



전정희 동창

### 백승숙(서양 86) 동창

1월 6일(금)부터 2월 1일(수)까지 강남 유디치과 내 유디갤러리에서 초대 개인전 'The Secret Place'를 개최했다. 작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희망을 만나는 그 공간을 'The Secret Place'로 명명했다.



백승숙 동창

### 윤 경(서양 86) 동창

윤 경 동창은 1월 18일(수)부터 30일(월)까지 서울시

## 이화여대 약대 개국동문회,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전달

이화여대 약대 개국동문회는 2월 22일(수)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조영희(약학 84) 이화여대 약대 개국동문회장은 “이번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튀르키예·시리아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피해가 복구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동창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성금 모금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화여대 약대 개국동문회 조영희 회장, 신민경(제약 85)·김영진(약학 90)·김은준(약학 97)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마루아트센터 특별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움츠렸던 날개를 활짝 펼친다는 뜻의 움찬나래 신년기획전에서 하늘바라기라는 주제 아래 신작들을 선보였다.



윤경 동창

### 이경애(서양 86) 동창

국립 금오공과대학 내 금오공대 갤러리에서 2023년 2월 초대작가로 '집의 원형을 찾아서(Going home)'이라는 전시 주제로 한 달간 개인전을 하였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의 일상이 바뀌게 되면서 집이 삶의 본질적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생각에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집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기획한 전시로, 회화부터 설치 미술까지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금오공과대학교 구성원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작품 전시회를 통한 문화예술 관람 기회 제공 및 저변 확대라는 전시 취지에 맞게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통한 소통의 장도 마련되었다.



이경애 동창

### 김곡미(생미 87) 동창

연암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곡미 동창이 2022년 12월 「축산악취저감을 위한 생분해성 바이오탈취제 특허기술 연구개발」로 최우수논문상(특허청장상)을 수상하였다. 2019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특허청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환경과 신기술 융합 등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있는 김곡미 동창은 올해에도 환경과 신소재 연구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러한 결과물을 통해 학생들 지도와 교육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김곡미 동창

### 박신숙(서양 87) 동창

관념 속 나무를 소재로 이성과 감성의 경계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향을 화면에 담아내는 박신숙 동창은 2월 8일(수)부터 12일(일)까지 벨기에 Brussels Art Fair에 참여했으며, 2022년에는 Singapore, Battersea, Manhattan에서 열리는 Art Fair에 참여했다.



박신숙 동창

### 최선(제약 87) 동창

모교 약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최선 동창이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생명·의료전문위원장에 재선임되어 1월 26일(목)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전문위원 워크숍에서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2년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대통령 자문 역할을 하는 자문회의와 정책 및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회의로 구성된다.



최선 동창

### 이상미(섬예 88) 동창

2022년 12월 16일(금)에서 31일(토)까지 핑크 갤러리에서 이재숙(도예 86)·남미영(생미 89) 동창과 함께 '비비안의 산타공장'전을 가졌다. 삶의 모든 것을 뜨겁게 사랑한 여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처럼 당당하게 살아낸 2022년을 자축하는 전시였다. <비비안의 산타 공장>에서는 도자 조형, 유화, 섬유 페인팅의 작품들이 전시되었고, 연말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의 방식으로 그룹 모임을 우선으로 예약받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상미 동창

### 정순돌(사복 89) 동창

모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정순돌 동창이 한국노년학회 제33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1978년 발족한 한국노년학회는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를 비롯한 최대 노인 학술단체로, 한국노년학논문을 발간하고 있다. 정순돌 동창은 노인복지와 사례관리 분야 연구의 권위자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장과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사회복지관장,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4년까지 2년간이다.



정순돌 동창

### 탁정미(물리 90) 동창

효성중공업 전무 탁정미 동창이 산업별 2022 올해의 CIO상을 수상하였다. 제조부문 CIO로 선정된 탁정미 동창은 효성중공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중심 경영체계를 혁신했다. 또한 효성그룹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제조업의 클라우드 도입에 성공했다.



탁정미 동창

### 박형주(서양 91) 동창

박형주 동창이 1월 10일(화)부터 19일(일)까지 씨아트컴퍼니 기획으로 내곡동 고즈넉한 공간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하루'라는 타이틀로 열렸던 이번 전시는 박형주 동창의 11번째 개인전이다.



박형주 동창

### 이영재(디대원 92) 동창

디자인대학원 패션디자인 동창회장 이영재 동창은 2023년부터 (사)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회장을 재임

하고 있다. 이영재 동창은 2001년부터 한양대학교 패션디자인 전공 교수로 재직하면서 IC-PBL 우수강의혁신상, Best Teacher상을 수상하였고, 『Do It Fashion(패션을 하자)』을 비롯한 4종의 저서와 80여 편의 논문발표, 3회의 국제 개인전, 50여 회 국제 그룹 초대전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이영재 동창

### 한나라(한음 92) 동창

퓨전국악그룹 페르시안블루의 멤버인 해금 연주자 한나라 동창이 2022년 12월 10일(토) 막을 내린 '오사가갤러리' 개관 6주년 기념 '국제미술축제'의 특별 초청을 받아 우리나라 전통 악기인 해금 공연을 펼쳤다. 오픈 공연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해금 연주는 비파를 연주하는 일본 연주자와 콜라보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나라 동창은 이화해금교습소를 22년간 운영했으며, 현재는 해금나라국악학원을 경영하고 있다. '2022년 올해의 이화인'에 선정되었다.



한나라 동창

### 김영미(문정 93) 동창

김영미 동창이 2020년 7월 1일(수) 국방부 사서군무 사무관으로 승진하였다. 김영미 동창은 1993년 9급으로 임용되어 육군사관학교 도서관에서 27년 3개월간 근무하고 현재는 육군교육사령부 도서관(대전 소재)에 근무하고 있다. 김영미 동창이 근무하는 동안 육군교육사령부 도서관은 2022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병영도서관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개인상도 수상하였다.



김영미 동창

### 박지영(체육 93) 동창

한국여성스포츠회 부회장인 박지영 동창이 국제카누연맹(International Canoe Federation, ICF) 다양성 및 포용위원회 위원장 및 국제카누연맹 여성 컨퍼런스 책임자로 임명됐다. 박지영 동창의 ICF 위원장 선임은 2022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현장에서 토마스 코니에츠코 ICF 회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박지영 동창은 제20대 대통령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대한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MBC 해설위원,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켈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이사, 대한체육회 정보통계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박지영 동창

### 박영신(약학 95) 동창

박영신 동창이 3월 1일(수) 한국엘러간 에스테틱스(에브비 컴퍼니)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박영신 동창은 25년간 제약업계에 몸담으며, 다양한 글로벌 제약 브랜드의 국내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영업 마케팅 전문가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에브비 면역학 사업부 총괄을 역임하였으며, 한국엘러간 제약 사업부, GSK 호흡기 사업부, 애보트 마취제 사업부, 한국웨링 피부과 및 산부인과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영업 마케팅 역량을 쌓고,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박영신 동창

### 정경아(의학 96) 동창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정경아 동창이 2022년 12월 20일(화) 엠베서더 풀만 서울호텔에서 열린 제32차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Surgical Film상을 수상했다.

정경아 동창은 「로봇 자궁근종절제술에서 다빈치 SP 시스템의 적용」 연구를 통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술한 환자 결과를 근거로 첨단수술 기법이 축적된 경험을 수술영상으로 발표했다. 다빈치 SP는 배꼽 한 곳만을 이용해 수술하는 로봇 단일공 수술에 특화된 최신 로봇수술 시스템이다. 정경아 동창은 산부인과 생식내분비 분야 전문의로 특히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환자들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로봇수술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정경아 동창

### 정경희(국문 96) 동창

정경희 동창이 1월 5일(목)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의 한국법인 오펔라헬스케어코리아의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정경희 동창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엘씨에이 한국(ELCA Korea)에서 브랜드 총괄,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에르파브르 더모코스메틱 한국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26년 동안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 및 조직관리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역량을 쌓아오며, 뛰어난 조직력 및 추진력을 통해 소비자 비즈니스를 이끌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정경희 동창

### 박혜성(서양 98) 동창

박혜성 동창은 2022년 12월 2일(금)부터 7일(수)까지 헤화아트센터에서 개인전 'Love Letter'를 열었다. 성경을 여러 층으로 필사한 작품이 사랑의 편지가 되어 감동과 치유를 전하고자 하는 전시였다. 2023년 2월 7일(화)부터 12일(일)까지 사이아트스페이스 선정작가로 제9회 개인전 'The Light'를



박혜성 동창

열었고, 작품이 프리즘이 되어 생명과 사랑의 빛을 전하고자 했다.

### 오수연(조소 98) 동창

1월 10일(화)부터 3월 31일(금)까지 '바라보다-흔한 풍경'이라는 주제로 바우지움조각 미술관에서 초대전을 열었다.



오수연 동창

### 신수희(약학 99) 동창

신수희 동창이 한국로슈,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클러스터 총괄에 임명되었다. 한국로슈의 커머셜 전략 수립을 총괄하는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클러스터를 이끌게 된 신수희 동창은 1999년 한독약품 입사 이후 사노피 코리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 당뇨병을 비롯한 다양한 만성질환 영역에서 커머셜 사업부 총괄을 역임한 바 있다. 이후 2018년에 한국노바티스 항암제 사업부의 혈액암 비즈니스 프랜차이즈 헤드를 역임했으며, 2019년에 한국노바티스 항암제 사업부 대표로 선임돼 다양한 혁신 항암제의 성공적인 발매와 보험 급여 등재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신수희 동창

### 김재진(법대·법전문 00) 동창

김재진 동창이 지난 1월 말,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의 상임부회장에 선임되었다. 모교 법학과 졸업 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재진 동창은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글로벌금융학회 기획이사,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박영사, 2022년)의 제1 저자이기도 하다.



김재진 동창

### 박현수(디대원 00) 동창

디자인대학원 동창회 부회장 박현수 동창이 캄보디아 Phnom Penh University of the Arts의 대외협력처장으로 임명되었다. 해외 학생지도와 교육을 위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편, 서울 아트 페어 조직위원회 상임이사이기도 한 박현수 동창은 2023년 디자인대학원 40주년 행사를 준비하며 동창회원 간용·복합 전시회도 추진 중이다.



박현수 동창

### 이주연(간호 01) 동창

이대목동병원 교육수련부 간호사로 재직 중인 이주연 동창이 1월 19일(목) 열린 대한심폐소생협회 정기총회에서 'Best Instructor' 상을 수상했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공인 교육 강사 중 심폐소생술 교육과 보급에 적극 참여한 강사를 각 교육 분야별로 1명씩 선발해 'Best Instructor'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주연 동창은 한국전문소생술(KALS) 교육 분야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주연 동창

### 이지선(유교 01) 동창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동창이 모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모교 재학시절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지선 동창은 졸업 후 미국 보스턴대에서 재활상담학 석사, 컬럼비아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에는 2017년부터 한동대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이 동창은 대학 교단 외에도 교회 등 종교 단체 등에서 신앙 간증을 이어가고 있다.



이지선 동창

### 장해림(섬예 02) 동창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스타벅스의 '경동마켓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스타벅스 경동1960점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제작 및 설치하였다. 장해림 동창은 커피콩이 한 잔의 커피로만 들어지는 과정과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모여 서로 소통하는 몸짓 및 대화를 추상적으로 드로잉하고 섬유에 프린팅 및 커팅하여 동글게 엮이는 구조로 설치함으로써 커피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가 생성되고 사람들이 이곳에서 서로 소통하며 연결되는 의미를 상징화하였다.



장해림 동창

### 손혜경(조소 03) 동창

2022년 12월 20일(화)부터 30일(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비정규노동자의 집 골짜지에서 '행진곡'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가졌다.



손혜경 동창

### 이덕희(의학 04) 동창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덕희 동창이 2022년 12월 8일(목) 서울 서남병원에서 서울특별시 주최로 열린 '제11차 서울 국제 응급의료 심포지엄'에서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덕희 동창

서울시는 이덕희 교수가 서울 서남 권역 이대목동병원 응급의료센터장 및 재난거점병원 책임자로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에 노력했고, 장기간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진료와 진료체계 마련에 기여했으며 서울 양천소방서 구급지도의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구급 품질향상 및 전문능력향상에 공헌해 표창을 수여한다고 전했다.

### 박아연(사학 06) 동창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사로 재직 중인 박아연 동창이 제2회 미술사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수상 논문은 「덕빈 윤씨(德嬪 尹氏)를 위한 불사, 1586년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연구」이다. 한국미술사연구소(한국불교미술사학회)는 "한국불교미술사 나아가 동아시아 불교미술사 연구에 크게 공헌할 참신한 논문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3월 15일(수) 서울 종로구 북촌에 있는 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



박아연 동창

### 이지은(장미-공간 06) 동창

이지은 동창이 2023년 1학기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공간디자인전공 조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국제적인 건축디자이너 사무소인 뉴욕의 Studio Daniel Libeskind에서 실무를 마친 후 한국에 돌아와 개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개소하여 다양한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로서 활동하며 보행(이동) 친화 공간디자인에 대한 주제로 한국도시설계학회, 대한건축학회, 한국주거학회에서 논문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우수 성과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지은 동창

### 송현지(국문 07) 동창

송현지 동창이 2023 《문화일보》 신춘문에 문학평론 부문에 당선되었다. 수상작은 「어느 순례자로부터 온 편지(안태운론)」이다. 시상식은 1월 26일(목) 서울 중구 문화일보사에서 열렸다. 송현지 동창은 현재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송현지 동창

### 강솔잎(한음 12) 동창

전주시립국악단 상임단원으로 재직 중인 강솔잎 동창이 제14회 ARKO 한국창작음악제(이하 아창제) 국악부문 초연 작품에 선정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가 주최하고 한국창작음악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창제'는 국악·양악 부문을 망라한 창작관현악 작곡과 발표, 비평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음악제다. 제14회 '아창제'는 1월 18일(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강솔잎 동창

### 안정신(의전원 12) 동창

이대목동병원 교수로 재직 중인 안정신 동창이 서울 국제종양외과학회(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of Surgical Oncology)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안정신 동창은 「유방암과 콜레스테롤 관계를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규명」 연구로 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받았다.



안정신 동창

### 이수진(동양 12) 동창

이수진 동창의 개인전 '대식이 소식가 전'이 2월 22일(수)부터 3월 7일(화)까지 서대문구 신촌로아트레온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수진 동창

### 이경진(통계 15) 동창

이경진 동창이 어웨이크코퍼레이션 프로젝트 총괄로 임명되었다. 이경진 동창은 '글랩' 운영사 큐피스트 출신으로 글랩의 초기 성장에 기여했다. 어웨이크코퍼레이션은 MCN(다중채널네트워크) 대체 소프트웨어 '크리에이터리'를 운영하는 회사



이경진 동창

로, 크리에이터리는 기존 MCN이 해오던 광고주와의 소통, 협의, 계약서 작성, 기획안 피드백, 결제정산, 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한 소프트웨어다.

### 신나리(국문 16) 동창

신나리 동창이 《한국경제신문》 2023 한경 신춘문에 시 부문에 당선되었다. 신나리 동창은 "멋 부릴 줄 몰라 솔직하게 쓴 시"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와 닿았으면"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당선작 「당산에서」는 시골 할머니 집에 머무르며 느꼈던 감상을 일상 언어로 담담하게 풀어냈다.



신나리 동창

### 김다솔(사학 21) 동창

김다솔 동창이 2023 《조선일보》 신춘문에 문학평론 부문에 당선되었다. 당선작은 「가장 밝은 세계를 등지는 힘-임술아론」이다. 김다솔 동창은 "소통하고 싶은 내게 문학은 유일한 '창구'"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다솔 동창은 모교 사학과와 국문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 석사 수료하였다.



김다솔 동창

### 강다영(서양 22) 동창

2월 24일(금)에서 3월 11일(토)까지 산지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강다영 동창은 재난적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환상적인 색감의 이미지를 만든다. 디지털 시대에 뉴미디어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차갑게 외면되는 일상 속 재난을 반성적 태도로 그려내는 동시에, 소외의 시선을 통해 그 공포를 역설적인 아름다움으로 그려내고 있다.



강다영 동창

## 이화 의료원 135주년 기념, 이화 의료의 역사를 돌아보다

이화의료원은 1887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병원인 보구녀관(普救女館)으로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의료기관이다. 국내 유일의 여자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이화의료원의 135주년을 기념하며 『이화 의료 이야기-보구녀관에서 이화의료원까지』(이화의료원 역사편찬위원회 지음,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이화의 의료 관련 역사를 전체적으로 되돌아보기 위해 이화의료원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집필하였다. 이화학당 설립자 스크랜튼 대부인과 미국 감리교 여성해외선교회의 여성 의료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보구녀관부터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동대문부인병원), 이대동대문병원을 거쳐 현재 운영 중인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까지 이화의료원의 과거와 현재를 큰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다.

### 『이화 의료 이야기-보구녀관에서 이화의료원까지』



이화의료원 역사편찬위원회 지음/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편찬위원: 유경하(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자형(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

김영주(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보구녀관 초대 관장)

임선영(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수석부회장)

권복규(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임수미(이대서울병원장)

자문위원: 백옥경(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화역사관장)

실무위원: 정은길(작가)

김유림(전 이화의료원 홍보전략팀 홍보파트장)

박세련(이화의료원 홍보전략팀 사무원)

홍연주(이화의료원 사회공헌부 사무원)

강혜림(전 이화의료원 사회공헌부 사무원)



1888년 찍은 보구녀관의 모습. 서양 복식의 메타 하워드가 중앙에 서 있고 오른쪽 남자는 호위와 신원 보증을 맡은 기수이다



보구녀관의 대기 환자들

가운데 중앙 검은색 옷은 엠마 언스버거, 흰색 모자는 마가렛 에드먼즈 간호원장, 간호원장 양옆으로 보구녀관 간호원양성학교 1회 입학생인 이그레이스(왼쪽), 김마르다(오른쪽)(1905년 사진)

## 이화 사랑의 힘,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로 보여주세요

25만 이화 동창 여러분, 동창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돕고, 이화 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총동창회 사업에 큰 힘이 되며 장학 사업, 회보 제작, 모교 발전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화에서 뜨거운 젊은 시절을 보냈고, 평생 버팀목이 될 교육을 이화에서 받았습니다. 이화가 우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화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 회비 납부를 통해 25만 이화 동창의 저력과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이화 동창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황규호

### 동창들이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방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화동창 연회비’**는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나 총동창회 계좌를 통해 해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는 평생 한 번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해마다 ‘이화동창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찾아 헤매는 불편이나, 은행에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 ■ 이화동창 평생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0만 원-2023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85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2023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6년 이후 졸업 동창)

평생 한 번 납부,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 ■ 이화동창 연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만 원-1년에 한 번 납부

### ■ 납부 방법

지로 입금-《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이명경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이화영문80)

### ■ 문의

총동창회 사무실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VVIP 통합 프리미엄 매칭 서비스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S Noble  
SINCE 1999

# 에 스 노 블

두 대통령 家의 성혼을 이루어 낸  
24년 경험의 프리미엄 매칭 노하우  
Nobless 결혼을 증명하는 최고의 성혼을  
집안까지 생각하신다면, 역시 Superior Nobel. S.Noble.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S Noble

이화여대 동창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 패밀리빌딩 2F <http://www.snoble.com/>



# 2023년도 총동창회 사업계획안

2023. 3. 1 ~ 2024. 2. 29



- 1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3월 11일)
- 2 각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 초청 간담회(4월 27일)
- 3 제9회 이화 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예정)
- 4 이화 창립 137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5월 9일)
- 5 이화 창립 137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5월 31일)
  - 제8회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  
졸업 50주년(1973년 졸업)·졸업 30주년(1993년 졸업) 동창 재상봉 행사
  - '영원한 이화인' 추대
  - '올해의 이화인' 추대
  - 합창제
- 6 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대바자(9월 예정)
- 7 총동창회 후원이사 초청 오찬회(예정)
- 8 2023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10월 26일~29일, 미국 보스턴 지회 주최)
- 9 2023년 이화인의 밤(11월 27일)
  - 제16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
- 10 이화가족 성탄예배(12월 7일)
- 11 정기임원회(매달 둘째 주 목요일)
- 12 동창회보 170호~173호 발간(3, 6, 9, 12월)
- 13 국내 지회 활성화를 위한 지회 순방
- 14 '올해의 이화인(이울) 연합회 모임
- 15 연회비 및 평생회비 납부 회원 배가 운동(연중)
- 16 후원이사 증원(연중)
- 17 모교발전기금 모금(연중)
- 18 지원 사업(연중) 1)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행사 찬조  
2) 학생군사교육단 입단식 후원
- 19 기념품 제작 및 판매(연중)
- 20 황화방 리모델링 후 운영(연중)
- 21 기타